

退溪先生の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 및 同劄子の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琴 鍾 友

目 次	次
I. 序 論	3. 「聖學十圖」의 政治思想
II. 退溪의 政治觀	① 第一太極圖
1. 退溪時代의 政治的 狀況	② 第二西銘圖
2. 退溪의 出仕와 政治的 經驗	③ 第三小學圖
3. 乾卦上九經筵講義와 西銘考證講義 와 諫의 思想	④ 第四大學圖
III. 聖學政治思想	⑤ 第五白鹿洞規圖
1. 戊辰六條疏의 政治思想	⑥ 第六心統性情圖
2. 「進聖學十圖劄」의 政治思想	⑦ 第七仁說圖
① 「聖學十圖」를 올린 理由와 十圖 의 構成	⑧ 第八心學圖
② 「進聖學十圖劄」의 政治思想	⑨ 第九敬齋箴圖
	⑩ 第十夙興夜寐箴圖
	IV. 結 論

I. 序 論

退溪先生の 學問과 思想을 理解하기 위하여 먼저 性理學의 成立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性理學이란 이름은 北宋의 儒學者 程明道(顥, 1032~1085)가 “天理” 2字를 처음 말하였고, 程伊川(頤, 1033~1107)이 “性即理”라고 말한 것을 根據로 삼아 南宋의 朱子(熹, 晦菴, 1130~1200)가 周濂溪, 邵康節, 張橫渠, 二程子의 學說을 綜合해서 宇宙觀, 人生觀에 대한 커다란 哲學體系를 이루었는데 이 系統의 學問을 後日에 性理學이라고 한다¹⁾는 것이다.

性理學은 儒家의 學說이다. 繼往聖開來學한 孔子는 當時 周末의 無道한 世態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晩年에 鄉里에 돌아와 詩, 書, 禮, 樂, 易, 春秋를 門人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것을 整理하여 그 속에 道를 傳하였다.

孔子沒後에 周末의 政治社會狀況은 더욱 混亂하였다. 列國은 戰爭을 일삼고 國內에서는 “臣弑其君하더 子弑其父하고”²⁾, “不奪하야는 不鑒”³⁾하는 狀況이었다. 戰國時代의

1) 李相殷, 「儒學과 東洋文化」, p.198, 凡學圖書, 1976.

2) 易, 坤卦文言.

3) 「孟子」, 梁惠王章句上.

孟子도 列國의 君主들을 만나 보았으나 亦是 道를 펴지 못하고 門人들과 學問을 講論하고 「孟子」를 지어 道를 傳하였다.

그런데 孟子와 孔子가 共通의 力說한 것은 人道이며 天道가 아니었다. 儒家人은 現實問題의 解決 곧 實踐에 置重하여 理論을 輕視하는 傾向을 가지게 되었다. 孔子와 孟子가 人道를 力說하고 天道를 力說하지 않는 것은 天道에 對한 理解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理由는 그들의 實踐哲學에 있어서 그것을 闡發할 必要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原來 人間의 理性은 發展하던 할수록 窮極의인 것을 알고자 하는 바 先秦儒家에서는 이와같은 傾向의 要求를 滿足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儒家의 哲學傾向은 情·意의 哲學傾向이기 때문에 知의 問題보다 行의 問題가 더 重要視되었다. 老莊에 이르러서는 情·意面의 實踐보다 理·知面의 追求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老莊은 天道를 말하게 되니, 宇宙의 本體와 그 生成變化 그리고 人道를 또한 天道의 立場에서 말하게 된다. 이리하여 老莊에 이르러 形而上學의 理論이 發達하였다.

孔孟儒家의 現世間的理論에 反하여 그들은 出世間的理論을 提出한 것이다. 老莊學은 魏晉에 이르러 玄學으로 發展하여 그 極致를 이루더니 그것은 當時의 富裕安樂한 貴族層의 厭世의 雰圍氣에 投合하여 마침내 清談派의 哲學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한편으로 東漢末葉에 輸入된 佛敎는 中國의 知性을 사로잡아, 出世間的 方向으로 쏠리기 始作한 中國의 思想界는 魏晉의 老莊學으로 부터 南北朝의 老·佛混流를 거쳐서 隋唐間에 이르러서는 外來思想인 佛敎로 기울게 되었다.

佛敎는 唐代에 이르러 全中國의 思想界에 君臨하고 政治的으로 莫大한 勢力을 차지하게 되어 魏晉 以來로 많은 學者들이 老·佛을 研究하고는 儒를 떠나 老·佛에 歸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唐宋間에 와서는 著名한 學者들이 禪門에 因緣을 가지고 儒學者로서 高僧들과 交際往來하였다⁴⁾고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批判이 있다. 韓愈(退之, 768~824)와 李翱(770~846?)는 道統說을提起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李相殷 教授는 “宋學이 特異한 色彩를 가지게 된 것은 中國知性의 自覺에서 온 것이었다. 卽 六百餘年동안 外來思想인 佛敎의 勢力 下에 思想的 領導權을 빼앗겼던 中國人의 知性은 이제 다시 自己네의 圈有한 思想으로 돌아와서 새로이 發揚光大시켜 自己의 生理에 適合한 生活理念을 確立해야 되겠다는 自覺이 생기었다”고 하고, 또 “宋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民族意識의인 傾向이 더욱 强하게 作用하였다”⁵⁾고 하고, 性理學이 過去의 先秦儒學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性理學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性理學은 孔孟儒學에 대하여 形而上學의 根據에 대한 理論을 提供하였다”고

4) 李相殷, 「儒學과 東洋文化」, pp.198~202 參照.

5) 前揭, 「儒學과 東洋文化」, p.206.

하고 「孟子」의 離婁章句上の “天下之本은 在國하고 國之本은 在家하고 家之本은 在身”을 引用하여 “身이 과연 어떠한 存在이며 그 存在의 根據는 무엇이나 하는 問題를 性理學은 主要한 課題로 다루어 그것을 究明하기에 힘썼다. 이것을 究明함으로 부터 그들은 本體論, 宇宙論의 學說을 構成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主要한 공헌을 한 것이 周濂溪의 太極圖說, 通書와 張橫渠의 西銘・太和篇이며 程朱의 理氣說”이라고 한다.

둘째, 性理學은 先秦儒學의 現世間的 思想과 老佛의 出世間的 思想을 止揚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老佛과 같이 現實世界를 떠나려고도 하지 않으며 先秦儒學者들과 같이 現實問題에만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世界에 即하여 世界를 벗어나는」 哲學을 가지게 되었다. 人倫日用現實生活을 떠나지 않으면서 現實生活 가운데서 宇宙의 本體와 冥合하려고 하는 人生哲學이 그들의 特有한 精神이라는 것이다.

셋째, 性理學者들은 人生의 眞義를 實踐하기 위하여 「尊德性」과 「道問學」을 重要視하였다. 「尊德性」은 「正心・誠意」의 工夫이며, 「道問學」은 「格物・致知」의 工夫이다. 「尊德性」에 있어서 程伊川은 「敬以直內・義以方外」를 말하였고, 「道問學」에 있어서 程子和 朱子は 「即物窮理」를 力說하였다.

요컨대 宋明儒의 性理學의 目的은 情欲의 蔽를 除去하고 「虛靈不昧」한 心의 本體를 回復하여 處事接物에 있어서 過不及의 偏이 없는 「中」道를 實踐하려 함에 있었다는 것이다.

네째, 性理學者들의 學問의 方法은 體驗・直觀의 方法을 主로 하였다⁶⁾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性理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退溪에 이르러 드디어 性理學의 蘊奧를 闡明하여 그 宗旨를 決定하여 儒教哲學을 完成시켰다”⁷⁾고 이른다. 또한 儒學에 있어서 政治가 어떻게 認識되고 있는가를 아울러 考察하고자 한다.

孔子는 “政者는 正也” 곧 政이란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또 子貢이 말하기를 “만일에 百姓에게 배푸는 것을 널리하고 能히 무리를 건질진대 어떠 합니까 可히 어질다고 이르리잇가 子 가라사대 어찌 어진데만 일 삼으리오 반드시 聖人일진저 堯임금과 舜임금도 그 오히려 病되히 여기시니라”⁹⁾고 하였으며, “博施於民而能濟衆”이 “어찌 仁이라고만 하겠는가 반드시 聖人이라고 하겠다”고 하였다.

言君陳有令德事親孝事上恭惟孝友於家是以能施政於邦孔子曰居家理故治可移於官……

곧 말하되 君陳이 令德이 있어서 어버이 섬김이 孝하며 위를 섬김이 공손하니 오직 그 집에서 孝하 友하는지라 이로써 能히 政事를 나라에 베풀어 孔子 가라사대 집에

6) 上同, pp. 209~210.

7) 洲曙柳夷佑, “韓國의 儒教哲學과 退溪先生의 地位 및 그 時代의 社會情勢”, 「韓國의 哲學」, 第3號, 197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p. 119.

8) 「論語」, 顏淵 第十二,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對曰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

9) 「論語」, 雍也第六,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如何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病諸.

居해 다스리는 故로 다스리는 것을 可히 官에 옮긴다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이 孔子에게 말하기를 “先生님께서 왜 政治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
에 孔子께서 대답하셨다. 「書經」에 “효도하랴 오직 효도하랴 그리고 형제에게 우애로
위라. 효제를 행동으로써 정치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
거늘 어찌 따로 정치를 할 것이 있는가¹¹⁾라고 하였다.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은 儒學의 目標과 그 實現의 段階와 節次 곧 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格物·致知·誠意·正心”은 “修身”을 위한 方法이며 또 “明明德”의 方法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親民”의 方法이며, “明明德”과 “親民”의 궁극적 목표가
“至於至善”이다.

“至於至善”은 事理當然의 極致라는 뜻이며, 지극히 善한 것, 가장 善한 것을 말한다.
人間은 항상 가장 善한 것을 取하려 하니 이것이 곧 “至於至善”이다. 따라서 “至於至善”
은 人間 또는 그 生의 完成을 意味한다.

“政事を 하되 德으로써 함이 譬하건데 北辰이 있으면 모든 별이 向하는 것과 같다”¹²⁾
고 하였다.

“堯임금이 가라사대 아! 너 舜아 하늘의 운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가운데
를 잡아라. 四海가 困窮하던 하늘의 祿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¹³⁾라고 하고, “人心은 惟
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이라사 允執厥中하리라”¹⁴⁾(「書經」, 大禹謨) 하고, 朱
子是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蓋自上古로 聖神이 繼天立極而道統之傳이 明
自來矣 〕라 其見於經則允執厥中者는 舜之所授禹也 〕라 堯之一言이 至矣盡矣而舜이 復益
之以三言者則所以明夫堯之一言이 必如是而後에 可庶幾也 〕라”하고 “夫堯舜禹는 天下之
大聖也오 以天下相傳은 天下之大事也 〕라 以天下之大聖으로 行天下之大事하사대 而其授
受之際에 丁寧告戒不過如此則天下之理 豈有以加於此哉리오”¹⁵⁾하여 天下의 理致에 이
以上의 理致가 없다고 하였다.

또 한편으로 退溪先生은 “河洛圖書가 나옴으로 부터 聖人이 그것에 기인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¹⁶⁾고 하여 儒敎哲學의 基本이 河圖 洛書인 것을

10) 「論語」, 爲政第二, 或謂孔子曰子奚不爲政子曰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是爲政奚其爲政.

11) 「書經」, 君陳과 그 註釋은 다음과 같다. 王若曰君陳惟爾令德孝恭惟孝友于兄弟古施有政命汝尹
茲東郊敬哉.

12) 「論語」, 爲政第二, 子曰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

13) 「論語」, 堯曰第二十, 堯曰咨爾舜天之歷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

14) 儒敎經典講究所藏板, 「諺譯書傳」(1924)의 訓讀과 義理를 다음에 옮긴다.

(訓讀) 人心은 위태하고, 道心은 적으니, 精하며—하야사, 眞실로 그 中을 잡으리라.

(義解) 이는 攝位를 命하고 그 임금되는 法을 가르침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萬事를 應하나니,
形氣에 發한 마음은 사사롭기 쉬운 故로 人心은 危殆하다 함이요, 義理에 發한 마음은
밝히기 어려운 故로 道心은 적다 함이니, 精하여 雜되지 말고 一결같이 變하지 말아 道
心이 主宰되고, 人心이 심을 좇게 하여야 中道를 잡으리니, 然後에 天下國家를 다스릴지
라, 이 비록 帝王의 傳授하는 心法이나, 實로 儒家學의 根本이니라.

15) 「中庸章句」, 序.

16) “進聖學十圖劄并圖”(增補退溪全書 1)

천명하였다. 河洛圖書의 基本哲學은 太極陰陽論이다.¹⁷⁾

위에서 考察한 바는 儒敎의 政治觀의 一端이며 儒敎政治思想의 深奧한 範圍를 알 수 있을것 같다.

위와 같은 觀點에서 退溪의 政治思想을 考察하고자 한다.

II. 退溪의 出仕와 政治觀

1. 退溪時代의 政治的 狀況

序論에서도 考察한 바와같이 儒學은 同時에 卓越한 政治哲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修齊治平의 儒敎의 精神과 經筵制度가 그것을 端的으로 말하고 있다. 儒學者는 儒敎의 經傳에 실린 政治의 事例와 聖賢의 政治思想을 知悉할 수 있다.

長沮와 桀溺이 함께 밭을 가는데 孔子께서 지나다가 子路를 시켜 나루터를 물었다.

長沮: “저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시오?”

子路: “孔丘이시오.”

長沮: “바로 노나라 孔丘이시오?”

子路: “그렇스.”

長沮: “그렇다면 그 분이 나루터를 아실거요.”

이번에는 桀溺에게 물었다.

桀溺: “당신은 누구시오?”

子路: “仲由라 하오.”

桀溺: “바로 당신이 노나라 孔丘의 문도이시구료?”

子路: “그렇스.”

桀溺: “天下가 모두 어지러우니 장차 누구로 더불어 어지러운 것을 變하여 다스림으로 바꾸리요. 임금이 쓰지 아니하면 이곳을 버리고 저곳으로 가는 諸國을 周遊하는 孔丘을 좇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같이 세상을 피해서 숨어사는 선비를 따르면 어떻겠소?”

子路가 돌아와서 告하자 孔子께서 길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새와 짐승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한다. 내 天下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 天下가 이미 泰平하게 다스려 있으니 내가 바꾸고자 할 일이 없거니와 天下가 道가 없는 故로 道로써 바꾸어 泰平케 하고저 함이니라.¹⁸⁾

17) 琴鍾友, “轉換期에서 보는 儒敎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第七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1987), 琴鍾友, “韓國의 傳統的 民主政治思想研究”, 『第五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1983).

18) 『論語』, 微子, 第十八, 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爲孔丘曰是魯孔丘與曰是也曰是知津矣問於桀溺曰爲誰曰爲仲由曰是魯孔丘之徒與對曰然曰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且而與其從辟世之士也豈若從辟世之士哉輿而木輟子路行以告夫子憮然曰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天下有道丘不與易也.

이것이 孔子의 精神, 儒敎의 精神의 一端이라고 할 것이다. 儒學을 完成케 한 退溪는 儒敎의 經傳을 通해서 政治가 어떤 것이며 政治의 當爲에 대해서 알았음은 勿論 出仕期間에 直接政治를 經驗하였다고 할 것이다.

儒敎에 있어서 學問과 벼슬은 相補關係에 있다. 修己와 治人은 本末과 先後關係에 있다. 知行並進이 바람직한 것과 같이 學問과 벼슬의 並進이 바람직한 것일까.

孔子는 “君子는 謀道요 不謀食하나니 耕也에 饒在其中矣호 學也에 祿在其中矣니 君子는 憂道요 不憂貧이니라”¹⁹⁾고 하여 學問하면 祿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또 孔子는 “삼년이나 학문을 하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쉽지 않다”²⁰⁾고도 하였다.

子夏는 “벼슬하고 여유 있으면 학문하고 학문을 해서 여유있으면 벼슬하라”²¹⁾고 하였다.

學問과 벼슬은 相補 兼行이 바람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孔子는 “篤信好學하며 守死善道니라”²²⁾고 하였는바 「論語集註」의 註釋은 이러하다. 독실히 믿지 아니한즉 能히 好學하지 못할 것이나 독실히 믿되 好學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或 바르지 아니하고 죽기를 지키지 아니한 즉 能히 그 道를 착하게 하지 못할 것이나 죽기를 지키고도 足히 써 그 道를 착하게 못하면 다만 죽을 다름이니 매개 죽기로 지키는 자는 독실히 믿은 효험이요 道를 착하게 하는 자는 好學의 功이니라고 하고 “危邦不入하고 亂邦不居하며 天下有道則見하고 無道則隱이니라.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耻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耻也니라”²³⁾고 하였다.

易, 乾卦文言에는 “亢之爲言也는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知得而不知喪이니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唯聖人乎느저”라 하였다.

退溪의 出仕에 있어서 進退는 위와같은 思想을 거의 완벽하게 實踐하였다고 할 것이다.

朝鮮王朝의 創建은 政權交替와 더불어 文化의 變革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國家理念은 儒敎政治思想이었다. 그러므로 朝鮮王朝는 儒敎主義 國家를 指向하였다.

太祖 李成桂와 開國功臣들은 王朝의 開創 당초부터 새로운 儒敎를 채택하여 政治哲學으로 삼아 儒敎政治가 進展하였다고 할 것이다.

新王朝의 政治的・經濟的 基盤이 잡힌뒤에 即位한 世宗(1418~1450)의 治世 32年間에는 儒敎文化・民族國家의 土전을 굳건히 하고 民族文化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한 것이었다.

世宗은 文風을 진작하여 儒敎의 王道政治를 뒷받침하고 集賢殿을 세 신하였다. 特히 經筵은 빈번히 가져서 經筵官으로 하여금 儒敎의 經籍과 時政을 강론케 하여 儒敎政治의

19) 「論語」, 衛靈公, 第十五.

20) 「論語」, 泰伯, 第八, 子曰三年學不至於穀不易得也.

21) 「論語」, 子張, 第十九, 子夏曰仕而優則學學而優則仕.

22) 「語論」, 泰伯, 第八, 篤厚而力不篤信則不能好學然篤信而不好學則所信或非其正不守死則不能以善其道然守死而不足以善其道則亦徒死而已蓋守死者篤信之效善道者好學之功.

23) 「論語」, 泰伯, 第八, 集註.

理論과 實際를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儒教倫理의 普及을 위하여 三綱行實, 孝行錄등을 刊行하여 널리 퍼었다. 冠婚喪祭等 儀禮는 「朱子家禮」를 준행하도록 하여 이를 普及시켰다.

朱子學은 學問의 基本이 되어 四書・五經에는 朱子集註가 기준이 되고 「易學啓蒙」・「近思錄」・「增損呂氏鄉約」등 朱子の 著述이 尊崇되었다. 科擧를 목표로 하는 儒學者들이 朱子の 學問에만 골몰할뿐만 아니라 朱子の 言行까지도 배우는 것이 참다운 聖學의 信奉者로 여겨졌다.

世宗때에는 明나라로부터 朱子の 「資治通鑑綱目」을 수입하였고 中宗때에는 「朱子大全」이 刊行되었다고 한다.²⁴⁾

太宗・世宗대에 걸친 王權確立에 뒤이어 東北面과 西北面의 野人을 鎮撫・經略하여 東北・西北界의 收復事業이 진척되어 朝鮮의 疆域이 오늘의 領域의 기반이 되었다.

麗末 이래 沿岸各地에 창궐했던 倭寇는 朝鮮王朝初期에 들어서도 그치지 않았다. 朝鮮의 對日關係는 한편으로는 外交로 또 다른편으로는 회유책으로 倭寇禁絶에 부심하였다. 倭寇의 소굴인 對馬島에 대해서는 麗末부터 이를 征伐한 일이 있었으며 世宗六年(1419年)에는 대규모의 對馬島 征伐을 敢行하였다. 世宗은 다시 倭人에 대하여 柔和策을 쓰고 倭船의 到泊處로 富山浦, 乃而浦의 蔚山의 監浦를 더하여 3浦를 지정해 주었다. 3浦에는 倭館을 두어 그들의 來往과 交易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倭船의 來船은 더욱 빈번해지고 倭의 내왕자도 날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世宗 25年(1443年)에는 對馬島主와 條約을 맺어 歲遣船을 年 50척으로 歲賜米를 米豆 200石으로 制限하였다. 이로써 對馬島主의 本土의 大小豪族들의 使送船의 來往할 여지를 주었다. 倭船의 來質은 女眞族의 進上과 같이 朝貢의 形式으로 官貿易이 행하여졌고 이와 아울러 私貿易이 따로 행하여졌다.

15세기 중엽에 私貿易이 늘어나는데 따라 密貿易도 盛해져서 그것이 倭人과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15세기말에 朝鮮은 私貿易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對馬島主와 3浦의 倭人들은 不滿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中宗때에 3浦의 倭人이 亂을 일으켜서 朝鮮은 이를 鎮壓하고 3浦를 폐쇄함으로써 對馬島主의 來質은 한때 단절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 商倭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았으나 日本幕府의 使船來往은 1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빈번했고 巨賄들의 通交도 크게 쇠퇴하지는 않았던 것이나 朝鮮에서는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使臣을 日本에 파견하는 일이 없어졌다²⁵⁾고 한다.

한편 朝鮮王朝의 政治體制는 麗朝의 文武兩班體制를 답습하여 그것을 다시 개편한 兩班官僚國家였다. 韓祐勑教授는 「韓國通史」에서 “그러한 체제의 기원은 中國 역대의 제도에서 유래된 것에는 닮음이 없으나, 그러나 그대로의 모방으로서만 족했던 것이 아니

24) 韓祐勑, 「韓國通史」, pp. 222~223. 乙酉文化社, 1970.

25) 上揭書, pp. 225~243.

고…… 朝鮮特有의 體制로 갖추어졌던 것이며 그 구조와 기능면에 있어서 특히 絶對王權과 兩班官僚 사이의 權力의 조화가 배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⁶⁾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兩班官僚에 의해서 扶持되는 王權의 安定은 이들 治者階級인 兩班들의 세력균형 위에서만 期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科擧시험의 公正한 施行에 의하여 兩班이던 누구나 자격이 있는 者에게는 官吏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兩班官僚體制를 제대로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²⁷⁾는 것이다.

그런데 “朝鮮王朝의 政治體制와 社會制度가 처음으로 확립되어가는 15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兩班官僚 사이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았다. 世祖의 王位찬탈 이후로 世祖에게 忠誠을 바쳤던 功臣들에 의해서 정권은 계속 농단되고, 이를 거쳐 世祖의 뒤를 잇은 成宗(在位 1469~1494)은 弘文館을 새로 설치하여 學問研究를 獎勵하고 書籍을 편찬케 하고 朝鮮王朝의 法典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그가 儒敎政治의 振興을 꾀하여 人材를 박탈하여 登用하는 機會에 儒學이 가장 盛했던 嶺南地方의 學者들이 중앙官界에 많이 進出하였다. 이들 嶺南出身의 新進官僚群은 朝鮮王朝 開創당시에 명망이 높던 學者이며 官僚인 그들이 오랫동안 忠誠을 바친 舊王室에 대한 節義를 지켜서 新王朝에 奉仕할 것을 拒否한 麗末의 學問의 傳統을 계승하였다.

成宗때에 中央官界에 진출하게 된 嶺南出身의 新進士類는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은 性理學을 研究하고 義理를 尊重하였으므로 이들은 節義를 숭상하여 世祖의 王位찬탈을 不義라고 생각하였다.

한편으로 기성세력을 이루었던 世祖의 功臣들을 주축으로 하는 기성세력은 政權을 농단하였다. 政治의 不正과 不義, 私利私欲을 놓고 兩班官僚勢力의 對立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既成勢力은 政治의으로나 經濟의으로나 이미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던 老成者들이며 그들은 學問의으로 詞章을 주로하여 朱子學 원래의 學問경향에서 멀어져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兩班官僚勢力의 對立은 政治에 대한 基本姿勢와 發想, 學問性格등의 相違가 점차로 具體的 對立感情으로 展開되었다고 할 것이다.²⁸⁾

成宗의 뒤를 이어 王位에 오른 燕山君은 政治에는 관심이 없이 學者와 文人을 경원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며 더욱 不仁, 不明하게 되자 이와같은 對立은 표면화되어 드디어 新進士類들에 대한 박해가 거듭되었다.

燕山君 4年, 1498年의 戊午士禍와 燕山君 10年, 1504年의 甲子士禍에 많은 新進學者들이 죽음을 당하여 儒學은 衰退하고 紀綱이 紊亂해졌으며 燕山君을 廢하고 即位한 中宗은 燕山君의 虐政을 改革하고 燕山君때 쫓겨난 新進士類를 登用하고 性理學을 크게

26) 韓祐勳, 「韓國通史」, p. 245, 乙酉文化社, 1970.

27) 上揭書, p. 268.

28) 上揭書, pp. 288~289 參照.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4.

장려하였다.

1515年(中宗 10年)에 成均館 儒生 200餘名이 連名하여 靜菴 趙光祖를 천거하였고 吏曹判書 安瑬이 또한 그를 추천하여 六品の 官職에 任命되었다. 그 뒤에 君主의 두터운 信任을 얻어 前後 5年間に 걸쳐 活躍하였다. 그는 儒敎로 政治와 敎化의 根本을 삼아 夏殷周三代의 政治를 再現시키고자 하였다.

1518年 中宗 13年 그의 建議에 따라 賢良科가 設置된 후, 이를 통하여 젊은 선비들이 차례로 要職에 임명되고 1519年(中宗 14年) 38才로 大司憲의 要職에 올랐다. 그러나 그 뒤로 反對派와의 對立에서 마침내 靜菴 趙光祖는 綾州에 귀양갔다가 賜藥을 받고 죽었으며 다른 젊은 선비들이 귀양갔다가 死刑 또는 自殺한 己卯士禍(1519年, 中宗, 14年)가 있었다.

1545年 明宗이 即位하는 乙巳年에 王室의 外戚인 大尹·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士林의 禍獄으로 小尹이 大尹을 逐出した 것이 乙巳士禍이다.

中宗은 第一繼妃, 章敬王后尹氏는 仁宗을 낳고 第二繼妃인 文定王后尹氏는 明宗을 낳았는데 章敬王后의 아우에 尹任이 있었고 文定王后의 아우에 尹元衡이 있었다. 尹任과 尹元衡은 國舅가 되어 반목 대립하여 世間으로부터 大尹(尹任) 小尹(尹元衡)으로 지목되었다. 中宗이 승하하고 仁宗이 即位하게 되자 尹任이 득세하여 士林의 名士를 많이 登用하였다. 그러므로 一時的으로 士林은 그 氣勢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뜻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尹元衡 밑에 모여서 士林과 反目하고 尹任의 勢力에 대한 反擊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仁宗이 겨우 在位 8개월만에 승하하고 12歲의 어린 明宗이 即位하여 文宗大妃가 垂簾聽政하게 되니 形勢가 逆轉하여 이번에는 小尹 尹元衡이 得勢하여 前日의 尹任의 勢力을 除去하였다. 곧 禮曹參議로 있던 尹元衡은 自派勢力을 단회하기 위해서 평소 大尹과의 私感이 있던 知中樞府事, 兵曹判書, 戶曹判書, 工曹判書등과 더불어 계책을 꾸미고 文宗大妃와 明宗을 선동하여 尹任과 吏曹判書 柳仁淑 領議政 柳灌등을 탄핵음모죄로 몰아 귀양보냈다가 죽이고 이어서 桂林君도 이음모에 관련하였다는 무고로 죽이고 前注書 李德應(尹任의 女婿)를 협박하고 조작하여 무고로써 修撰 李載, 副提學 羅淑, 參奉 羅湜, 鄭希登, 朴光佑, 司諫 郭珣, 正郎 李中悅, 李文樞등 10餘名을 죽였다. 이 餘波는 그뒤 5·6년에 걸쳐 流配되고 죽은 사람의 數가 거의 100명에 달하였다²⁹⁾고 한다.

退溪의 兄 李滄도 尹元衡의 심복인 李芑를 彈劾했다고 해서 李芑의 모함으로 明宗 5年 8월에 流配되어 配所로 가다가 도중에 死亡하였고 退溪도 李芑의 誣告로 削職을 당했다가 복직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에 거듭된 政爭과 獄事는 士類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兩班官僚體制自體를 크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닐수 없었다.

29) 李弘植, 「國史大事典」, 百萬社, 1972.

그리하여 政治的 混亂에 따라 이미 문란해 가던 朝鮮王朝 원래의 體制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退溪先生의 時代는 이와같은 時代狀況이었다.

2. 退溪의 出仕와 政治的 經驗

退溪先生의 姓은 李氏, 諱는 滉, 字는 景浩, 號는 退溪, 陶叟, 退陶, 諡號는 文純, 本貫은 眞城이다. 退溪는 始祖 碩의 7世孫인데 始祖 碩은 麗末에 眞寶縣吏로서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뒤에 아들 松安君 子修의 榮貴로 인하여 奉翊大夫密直使에 進封되었다. 子修는 벼슬이 通訓大夫 判典義寺事로 있다가 恭愍王 11年(1362年)에 裨將으로 紅賊의 亂을 討伐한 功으로 安社功臣의 號를 下賜받아 松安君으로 封하여졌다. 松安君이 倭寇를 討하여 安東府 豐山縣 南磨崖里로 移居하였고 뒤에 다시 周村에 옮기고 祖父인 判書公 繼陽때에 이르러 禮安縣 北쪽 溫溪의 泉石의 景치가 좋아서 비로소 卜居하게 되었다.³⁰⁾

退溪先生의 先世는 嶺南士林派의 일반적 특징을 잘 지니었고, 松安君때부터는 家勢가 興盛하여 後孫이 번창하여 仕宦이 계속되었고 叔侄代에 와서는 마침내 禮安地方의 代表的인 士族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³¹⁾

退溪先生은 1501年(燕山君 7年) 11월 25일 辰時에 禮安縣 溫溪里 본가에서 탄생하였다. 아버지 堧는 進士로서 뒷날 아들들의 榮貴로 인하여 左贊成이 贈職되었는데 불행하게도 退溪가 出生한 翌年 6월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禮曹正郞 金漢哲의 딸에게 장가들어 潛·河 두 아들과 딸을 남기고 金氏夫人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別侍衛 朴縉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4형제를 낳았으니 退溪는 네째이다. 退溪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적에 오직 맏아들만이 결혼하였고 그 나머지는 어린 아이로 남겨졌다. 退溪의 아버지는 6남1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退溪가 쓴 墓碣誌銘에 의하면 그가 죽기 전에 일상 말하기를 “내 아들중에 능히 나의 業을 계승하는자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여기 “나의 業”이란 무엇일까. 墓碣誌銘에 의하면 “公은 젊어서부터 아우 堧와 함께 뜻을 돈독히하여 배우기를 힘써 羣書를 博覽하고 문장을 하셨으며 오로지 과거문에만 힘쓰지 아니하여 여러번 과거를 보았으나 늘 떨어지다가 庚申年 鄉試에서 首位로 뽑히고 辛酉年에 進士에 中試되었다. 항상 분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며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던 학도를 모아놓고 학문을 가르쳐 주면 나의 뜻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나의 業”이란 학문하는 일이다. 그리고 退溪는 어머니 朴氏墓碣文에서 “매양 자식들을 훈계하시되 문예에만 힘쓰지 말고 더욱 몸가짐과 행실을 삼가할 것을 중요하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사물을 비유하여 든다든가 어떤일을 붙잡아서 교훈을 삼는다든가 하시는 일이 많

30) 「退溪先生文集」(「增補 退溪全書」三) 續集附錄 下 (「退溪先生言行通錄」 卷第六(「增補退溪全書」四), 年譜條.

31)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p. 92, 203, 1984.

았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고 절실하고 경각심을 높여 주지 않음이 없었다. 뒤에 두 아들이 大科及第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도 夫人께서는 그 榮進으로써 기쁘다 아니하시고 항상 세상의 시끄러움을 걱정하셨으며, 비록 문자는 익히지 않았어도 평소 先君의 庭訓과 여러 사람들의 서로 강습하는 말들을 자주들어 왕왕 깨닫는 바 있었으며 그 의리에 들어맞고 事理에 통하는 식견과 사려는 士君子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부인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조용히 겸양하는 태도를 지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庭訓이 退溪의 學問과 人格에 크게 영향을 미친것을 짐작할 수 있다.

退溪는 12세 때 叔父 松齊公 堦에게서 論語를 배우기를 비롯하여 20세 周易을 읽고 그 뜻을 강구하기에 침식을 잊다시피 하였다 한다. 이에 지나친 공부로써 오래 痼疾을 얻게 되었다.

23세 1523年, 中宗 18年, 癸未에 서울로 올라가 太學(成均館)에 유학하였다. 이때에 己卯士禍(1519年)를 겪은뒤라 부락한 士習이 나타나지만 退溪는 일상의 言行을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힘썼다. 그때 河西 金麟厚만을 친하게 지냈다. 이에 관한 年譜의 記錄은 다음과 같다.

“이 해에 先生이 처음으로 太學에 들어갔다. 그때는 己卯의 禍를 지난 뒤였으므로 선비들의 풍습이 浮薄하여서, 先生의 行動舉止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요, 서로 상종하는 이는 오직 河西 金麟厚 한 사람뿐이었다. 얼마 안되어 先生이 고향으로 돌아가니, 河西가 작별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대는 영남의 수재요, 李杜의 문장에 왕회지와 조맹후의 글씨라”는 귀절이 있었다.”³²⁾ 退溪는 27세에 1527년 慶尙道 鄉試의 進士試에 응시하여 수석을 차지했고 生員試에 응시하여 차석으로 합격했고 이듬해 봄에는 進士會試에 차석으로 뽑혔다. 32세에는 文科別試에 응시하여 第二人으로 합격했다. 33세 때에는 慶尙道 鄉舉에 응시하여 第一人에 천거되었으며 34세 때 1934年, 甲午年, 中宗 29년에는 大科에 及第하여 出仕하게 되었다.³³⁾

退溪의 出仕時期는 1534年 34세 때부터 49세까지로 본다.³⁴⁾ 그것이 바로 丹陽郡守가 되고 豐基郡守가 되는데 까지이다. 그 뒤에도 벼슬을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退溪는 항상 辭退하고 물러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隱退時期로 보고있다. 그 이후로는 대부분이 임금의 召命때문에 할 수 없이 入京했다가 벼슬살이를 한 것이지 자진해서 서울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벼슬의 品階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퇴하는 경향이었으며 正三品 이상의 벼슬이 除授는 되었지만 받아들인 적은 없다. 退溪는 49세 되는 明

32) 是歲先生始遊太學 時紀己卯之禍士習浮薄見先生舉止有法人多笑之所與相從者惟金河西麟厚一人而已先生未幾還鄉河西以詩贈別有云夫子嶺之秀李杜文章王趙筆(『退陶先生言行通錄』卷之六(『增補退溪全書』四)年譜, 先生二十三歲條)

33) 『退陶先生言行通錄』卷之六(『增補退溪全書』四), 年譜參照

34) 李東英, 「朝鮮朝嶺南時歌의 研究」, p. 85, 螢雪出版社, 1984.

宗 4年 9月의 豊基郡守 辭任狀으로부터 70세되는 宣祖 3年 9月의 乞致仕狀을 올리기가
지 21년 동안에 무릇 53회의 辭退願을 올리었다.³⁵⁾

그러던 退溪의 出仕期間동안의 官職을 考察하던 丹陽 郡守와 豊基郡守의 두 外職이외
에는 內職이다. 在職期間이 오랜 것으로 本職은 弘文館 벼슬 30개월이 가장 길고 兼職
에 있어서 承文院벼슬 31개월이 가장 長期間이 된다. 다음으로 長期間을 차지한 것은
兼職의 經筵 24개월과 春秋館 21개월의 벼슬이 있다. 그러므로 退溪의 49세까지의 벼슬
살이는 弘文館, 承文院, 經筵, 春秋館 네 官衙의 벼슬을 中心으로 그의 國家에 대한 奉
仕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³⁶⁾

儒敎政治思想에 있어서 君主는 權力の 核心으로 有德하여 國民의 君師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朱子는 「大學」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有聰日月睿智能盡
其性者」 出於其間則天必命之하샤以爲億兆之君師하샤 使之治而敎之하야 以復其性케 하
시니…….” 이와같이 君主政治에 있어서 君主의 役割이 매우 重大하고 君主와 世子를
敎育하고 補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文官으로 君主를 보좌하는 中
心이 되는 機關은 弘文館, 承文院, 藝文館, 經筵이 있다.

退溪는 弘文館에서 己亥年(中宗 34年, 1539年) 39세에 從6品の 副修撰으로부터 正六
品 修撰을 거쳐 40세에 正 5品校理, 그리고 正 4品 應校, 45세에 正3品 典翰을 역임하
였다. 그리고 承文院에서 벼슬의 첫 出發을 副正安, 正字, 著作, 博士, 校檢, 校理, 校
勘, 參校를 兼職으로 역임하였다. 春秋館에서는 記注官, 編修官을 經筵에서는 檢試官,
侍讀官, 侍講官을 兼職으로 역임하였다.³⁷⁾

그러나 弘文館에서는 內府의 經筵을 管理하고 國王의 對內의 發表文書를 製述하여 향
상 國王의 顧問에 응하여 그 보좌의 임무를 수행하고 承文院은 事大交隣의 外交文書를
판장하는 기관임으로 對明關係의 對日關係의 外交文書를 다루는 아문이다. 특히 對明外
交文書는 格式이나. 文章表現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國家의 不利益을 초
래할 위험성이 있고 또 中國의 文物制度와 學術思想 그리고 時務에까지精通하여야 한
다. 이와같은 職務를 탁월하게 處理한 退溪先生의 政治的 經驗의 폭이 넓고 깊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春秋館은 당시 國王의 政事를 記述하여 國史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는 史館이다. 退溪
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사실의 記述을 맡는 記事官, 記事에 對하여 褒貶의 意見은
말하는 記注官, 記錄된 文書를 정리하여 편찬하는 編修官을 역임하면서 儒敎經書와 史
書를 통한 古今의 政治的 事例를 가까이서 경험한 기회를 가졌다. 經筵官은 國王에게
儒敎經典과 史書를 進講하고 古今人物과 時政에 대한 論評을 加하는 官職으로써 國王의
學識, 見聞을 넓히고 德性を 향양하여 國王으로서의 品格을 높이고 政治的 資質을 높이

35) 上同.

36)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34~37, 瑞文文庫, 1973.

37)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p.34~39 參照.

고 사람에게 따라서는 國王과 直接 面待하는 機會를 이용하여 國王을 통하여 自己의 政治的 抱負를 실현코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³⁸⁾

經筵에서 國王과 臣下들은 經史를 읽고 그 內容을 토론하였는데 그 目的은 國王이 經史에 담긴 政治의 原理와 實際를 學習하는 것이며 論義의 重點은 항상 君主의 役割에 歸着했다. 國王의 가장 중대한 責任은 무엇이며 歷代王朝의 君主들의 義務遂行은 어떠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거울삼을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였다고 하겠다.³⁹⁾

退溪는 42세, 中宗 37年 壬寅(1542年) 3월에 또 經席에 入侍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大尹과 小尹의 外戚들이 政權을 專擅하면서 權力鬭爭을 일삼음으로 東漢章帝의 故事를 引用하여 外戚專擅의 폐단을 警戒하여 아뢰기를 “한 시대가 興할때 에는 반드시 한 시대의 規模가 있는 것이 큼니다. 東漢의 光武帝가 外戚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급기야 外戚의 손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한 임금들이 친히 規模를 세웠지만 그 子孫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일을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章帝도 어진 임금이었으나 그때부터 비로소 外戚이 세도를 부리는 징조가 생겼습니다. 대개 史書를 읽고서 모름지기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혼란해지고 하는 까닭을 보아서 알게 된 연후에야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고 하였다.⁴⁰⁾

3. 乾卦上九 經筵講義와 西銘考證講義와 謙의 思想

九二에 대해서 程傳에는 “田，地上也，出見於地上，其德，已著，以聖人言之，舜之田漁後也，利見大德之君，以行其道，君亦利見大德之臣……”이라고 하고 本義에는 “九二雖未得位而大人之德……”이라고 하었는데⁴¹⁾ 退溪는 乾卦九五를 君位로 九二를 臣位로 말하였다. 그리고 文言에 이르기를 “亢龍이 後悔함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孔子가 말하기를 貴하되 地位가 없고 높은 자리에 있되 백성이 없다 하였으니 어진 사람을 아래지위에 두어서 輔弼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後悔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孔子가) “또 말하기를 亢이라는 말은 前進할 줄만 알고 後退할 줄 모르며 存在하는 것만 알고 없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얻는 것만 알고 잃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오직 聖人만이 나아가는 일과 물러가는 일, 存在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알고 그 바른 길을 잃지 않는자는 오직 聖人만이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⁴²⁾하고 “臣은 아뢰니다. 임금은 權勢와 地位가 至極히 높습니다. 진실로 前進하는 일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38) 上揭書, p. 37~40.

39) 權延雄, “世宗祖의 經筵과 儒學”, 『世宗祖文化研究(Ⅰ)』, p. 81, 博英社, 1982.

40) 經席臨文 啓曰一代之興必有一代之規模東漢光武不尚外戚而及其亡也專由於外戚之手創業之君親立規模而子孫不能之以誤國事章帝亦賢君而其時有外戚 專擅之漸凡讀史須看治亂之所由然後有益矣,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增補退溪全書』 四), 年譜上)

41) 『備旨具解 原本周易』 乾卦 九二爻條.

42) 文言 曰 亢龍有悔何謂也 子曰貴而先位高而天民賢人在下位而无輔是以動而有悔也又曰亢之爲言也知進而不知退知存而不知亡知得而不知喪其唯聖人乎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唯聖人乎 (『退溪先生文集』 卷七(『增補退溪全書』 一經筵講義條)

시 後退하게 되고 存在하는 것은 반드시 없으며 얻으면 반드시 잃는일이 있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높고 겸손하지 못하고, 막 차면 뜻과 기개가 교만하고 넘쳐서 어진이를 업신여기며 스스로 聖人인 채 합니다. 혼자서 智慧로 세상을 다스릴려하고 臣下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德을 같이 하여 誠意로 서로 믿고 함께 다스리는 도리를 이론하기를 즐기지 아니하니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지 아니 합니다”하고 “陽氣가 너무 높이 올라가 밑에 있는 陰氣와 交流하지 아니하여 구름이 비가 되어 萬物에 은택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여 君王이 亢龍有悔가 없도록 亢滿하여 志氣가 교만하고 넘치고 어린이를 만홀이 여기고 스스로 성인이 되지 말고 爲民德治를 위에서 臺下와 同心同德하고 誠意로 서로 믿고 다스리는 理致를 이룩하기를 기꺼이 하여야 된다”고 하였다.⁴³⁾ 이어서 말하기를 “이때문에 옛날의 賢明한 君主는 깊이 이치를 알고 항상 스스로를 낮추어 굴하고 겸손하며 공경하여 스스로 虛한 것처럼 하는 것을 君王의 道로 하였읍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寡人(德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니, 涼德(薄德이라는 뜻)이니 予小子(어른이 아닌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니, 眇眇予末小子(微소한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니 하였읍니다. 그들 스스로의 處身이 이와 같아서 오직 혹 교만하고 지나쳐서 스스로 겸허하지 못하고 가득차서 위태롭고 패망하는 환난에 이르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읍니다. 이른바 차면 오래 못간다는 것을 잘 알고 亢에 이르기전에 방지한다면 후회 있을자가 후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繫辭에 가로대 地位가 危태할까 하는 者는 그 地位에 安心했던 者이고 亡할자는 언제까지나 存續할 것이라 생각하는 者이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일찍이 잘 다스려졌던 狀態가 지금도 있는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易이 가로되 亡할까 亡할까 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이를대면 包桑과 같은데 배어두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聖明께서는 항상 이를 경계하시어서 亢滿의 後悔가 없게 하신다면 宗社에 큰 다행이겠읍니다”고 하였다.⁴⁴⁾ 退溪先生은 이와같이 옛날의 賢明한 君主는 “亢龍有悔”의 理致를 교훈삼아 항상 “貶抑降屈謙恭된 虛”로써 道를 삼았다고 하고 “驕溢自滿”에 빠질까 오직 두려워하고 “차면 오래가지 못한다”(盈不可久)는 것을 잘 알아서 亢이 되기前에 방제한 즉 후회할자가 후회가 없어진다고 하고 繫辭下傳第五章의 “子曰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 亂者 有其治者也”와 易曰 其亡其亡 繫于包桑”⁴⁵⁾을 引用하여 君主가 항상 이 경계를 잊지 말아서 亢滿의 危우침이 없게 하라고 하고 있다.

이 乾卦上九講義는 九二를 程朱와 달리 오로지 臣位를 말하고 있고 君主에게 九五의

43) 臣謂人君勢位高亢苟不知進極必退存必有亡得必有喪之理至於亢滿則志氣驕溢 慢賢自聖獨知馭世不肯與臣下同心同德誠意交孚以共成治理膏澤不下於民北如陽氣亢極而不下則陰氣無緣自上而交陽豈能興雲致雨而澤被萬物乎(經筵講義條)

44) 是以古之賢君深知此理常以貶抑降屈謙恭自虛爲道其自稱曰寡人曰 涼德曰予小子曰予少予目少予末予小子其自處如此惟恐或至於驕溢自滿而有危亡之患所謂能知盈不可久而防於未亢之前則有悔者无悔矣故繫辭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亂者有其治者也易曰其亡繫于包桑伏願 聖明常持此戒不至於亢滿之悔宗社幸甚(「退溪先生文集」卷之七「增補退溪全書」一) 經筵講義, 乾卦上九講義條)

45) 否卦 九五爻辭이다.

卦辭가 아니라 上九의 卦辭 “亢龍有悔”를 들어論하고 있는 바는 退溪先生의 政治思想이 얼마나 높고 집오하며 卓越한 思想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退溪先生의 聖學思想의 偉大한 政治哲學의 一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乾卦上九講義의 政治思想은 要컨대 君主의 最高의 德의 하나가 謙의德 곧 謙遜의 德이라는 것을 淸명한 것이다. 退溪先生의 병세가 위독하게 되어 門人들이 겹쳐서 謙卦 “君子有終”의 占辭를 얻었다고 한다. 年譜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先生 病勢 已革 門人筮之得謙卦君子有終之辭”

謙卦의 卦辭는 “謙은 亨이니 君子有終이니라”이다. 이의 彖辭는 다음과 같다. “彖曰 謙亨은 天道 下 濟而光明하고 地道 卑而上行이라.

天道는 虧盈而益謙하고

地道는 變盈而流謙하고

鬼神은 害盈而福謙하고

人道는 惡盈而好謙하나니

謙은 尊而光하고 卑而不可踰 〽니 君子之終也 〽라.⁴⁶⁾

謙은 序卦傳에 所有의 큰것은 차서(盈)는 안된다. 그러므로 謙으로써 받는다고하여 (謙, 序卦, 有大者, 不可以盈, 故, 受之以謙) 大有卦 다음에 謙卦오는 理由를 말하고 있다. 程傳에서는 “其有既大不可至於盈滿必在謙損故 大有之後受之以謙也”를 더 敷衍하여 “謙損”에 있어야 함으로 大有를 謙이 받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彖辭에 의하면 謙은 亨通한다. 왜냐하면 陽氣가 내려와서 萬物을 구제하며 빛나는 것이 天道이며 또 地道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陰氣는 항상 上行하며 陰陽의 기운이 交流하기 때문에 亨通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움직임은 찬 것(盈)을 반드시 이즈러지게 (虧)하고 차지 않는것(謙)을 반드시 더하는 것(益)이 原則이다. 달(月)이 차면 기울어진다(虧). 뿐만 아니라 陰陽의 消長이 또한 그렇다. 높은산은 그 흙이 流失되어 계곡으로 흘러 河川을 이루고 河床이 높아진다. 鬼神은 驕慢한者 禍를 주어 害롭게 하고 謙遜한 사람에게 福을 준다. 人之常情은 驕慢한 者를 憎惡하고 謙遜한 사람을 좋아한다. 謙遜한 사람은 尊位에 있으면 그 德이 더욱 더욱 빛나고 설령 낮은 地位에 있어도 그 德이 높기 때문에 그 위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卦辭 君子有終의 理由이다.

退溪先生은 또 “西銘考證講義”에서 易謙卦의 象辭中 “君子以裒多益寡稱物平施”⁴⁷⁾를 들어 謙遜의 德을 강조하고 있다. 謙卦의 象辭는 “地中有山이 謙이니 君子 〽以하여 裒多益寡하여 稱物平施하느니라”이다. 땅속에 산이 있는것이 謙이다. 낮은 땅속에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낮은 자세 속에 높은 德은 숨겨져 있는 것이 謙의 象徵이다. 君子는 이 卦를 法산아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을 더해서 사물을 헤아려서 고르게 베푼다는

46) 世昌書館刊, 「原本周易」에 의함.

47) 「退溪先生文集」卷七(「增補退溪全書」一西銘考證講義, 條)

것이다.

退溪先生은 數 많은 辭退願을 올리었다. 出處進退의 大義에 말미암은 것이지만 退溪先生은 盛德大賢의 道學者이면서 辭免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몸소 謙의 德을 實踐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政治의 經驗, 그리고 政治現實을 꿰어나게 認識하였다고 할 것이다. 政治와 道學은 이미 서로 容納하지 않게 된 것이다.

李相殷教授는 退溪先生의 辭免을 請하는 根本動機가 學問愛好熱이라고 하였다.⁴⁸⁾

成樂熏教授는 退溪가 관직을 물러나기를 일삼음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그의 성질이 世俗과 잘 화합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⁴⁹⁾

退溪先生은 “戊午辭職疏”에서 “옛 先王들이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지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므로 지능이 큰 이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이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며, 크고 작은 일에 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물러칩니다. 한번 옷사람이 잘못 평가하고 그릇 등용하게 되어 선비된 자가 자기지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려 사퇴하기를 청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개 조정에서 인재를 그릇 쓰지 않음이 이와 같아 선비가 그 뜻을 행할수 있음이 이와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臣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지않고 小臣은 일도 많고 공연히 녹만 먹는 허물이 없게 되어 현명한 이가 그 자리에 앉고 능력있는 이가 그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하여 충성심을 떨쳐 능력을 다하지 않는이가 없어 조정에선 좋은 정치를 이루게 되고 지능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野에 물러가 있도록 허락하여 자기 분수대로 편안히 살며 제 노력으로 먹고 또한 禮儀廉恥를 지킵니다. 이것이 예전에 賢과 愚가 각己 제 자리를 얻고 禮讓이 행해져 좋은 政治가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고 하여 禮儀康恥를 지키는 것이 賢과 愚가 각己 제 자리를 얻게되고 禮讓이 행하여지는 것이 좋은 政治가 이루어지는 소치라고 한다. 또 같은 疏에서 “……臣도 역시 臣을 아끼는 者는 적고 미워하는 자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臣이 외로이 이 한몸으로 못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쟁을 당하게 되니 臣의 위태로움이 甚하옵니다……”고 하고 “……고집만 부리고 못 사람의 비난과 의심속에 처하면서도 마음 바꿀줄을 모르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義理에 크게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기 매대입니다. 일의 宜當함이 義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지 않은 채 하고 백슬을 도둑질 하는것……병으로 폐인이 된 처지에 부질없이 벼슬자리에 앉아 녹만 받는 것……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직무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정말 宜當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다섯가지의 宜當하지 못함을 가지고 조정에 선다면 臣下된 의리에 어떨겠습니까. 그러므로 敢히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다만 義라는 一字를 성취하고자 할뿐입니다”고 하여 謙讓의 德과 義理가 表裏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48) 前掲書, p.61.

49) 『韓國人物全集』3, p.224, 三潮社, 1977.

“戊辰辭職疏”에서 “德이 높고 지혜가 밝은 옛 임금들이 어진이를 높이고 선비를 일용하는 것을 급무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요즘의 임금들은 혹 한갓 어진이를 좋아하는 뜻과 췌을 즐겨워하는 경증이 있더라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人品이 어떤가를 묻지도 않고 채주도 덕도 갖지 않는 사람을 그릇되게 招聘하고 헛된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는 선비들에게 갑자기 높이고 禮로 대우하게 되니 곧 굶은자를 들여쓰고 바른 사람을 버리게 되어 萬民이 不服하고 賢과 愚가 뒤섞여 국정은 날로 문란해지고 전날 賢人을 좋아하고 췌을 즐겨하는 마음은 이를 말미암아 게을리지게 되어 마침내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해를 招來하여 어두운 임금과 어지러운 조정의 所爲와 한가지로 되어 사방에 웃음거리로 傳하고 천고의 꾸밈음으로 남게 되니 가히 신중을 다하지 않고 경솔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臣이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둑질 한 죄는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臣欺世盜名之罪何所逃乎)고 하였다. 그리고 “……因山을 앞두고 머물러 기다릴 수가 없어서 前職이 사면되어 관직이 없는 틈을 타 경솔하게 鄉里에 돌아와 버렸습니다”고 하여 出處進退의 大義에 廉恥尊重과 政治에 대한 깊은 理解가 內包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戊辰辭職疏二”에서 “程子가 前後벼슬을 사퇴한 것이 아홉번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세 번이요 朱子가 부르는 命을 사퇴한 것이 열 번 벼슬을 사퇴함과 당의 재촉(堂促)함을 사퇴한 것이 무려 五六十번이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여덟 번”이라 하고 “그 분들이 義에 틀리는 것을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사양하거나 받는데 있어서 禮義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진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면 그 本心을 잃어 도가 폐하여지므로 부득이 그러하였을 뿐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司馬光, 范鎮, 劉宰, 崔興之등이 모두 固辭한 것을 듣고 “君臣의 大義”를 잊은 것이 아니라고 변별하고 “臣이 오직 구구히 면할 뿐이오나……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어찌할수 없는지라 충심으로 스스로 맹서하기를……오직 그 지위에 처하지 않고 그 利를 享受하지 않는 것만이 가위 만분의 일이라도 몸을 씻고 속죄함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신이 여러번 그릇은혜를 입은 뒤에는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義로 삼고 다시 반열에 나아가 힘을 다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옳습니다.……사망과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작은 인제는 가히 큰 벼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늙고 병든 이에게는 직책으로 책망하지 않고 卿相의 地位를 가히 헛 이름으로 망명되이 일할 수 없다는 것과 어진 정치아래에서는 가히 한 물건도 자기 제 분수를 알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시던 거룩한 덕과 큰 은혜는 신이 마땅히 사망의 만 백성과 함께 그 은덕의 흠족한 것을 함께 하고 감히 사사로이 한 몸만의 다행으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고 한다.

乾卦上九 文言에는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知得而不知喪이니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고 하고 있다.

退溪先生은 謙遜의 德을 준거한 德으로 보았거니와 몸소 實踐하였음을 알수 있다. 先

生은 70세에 逝去하였다. 그리고 그 終命은 儒家의 理想的 인죽음의 一例이다. 年譜에는 宣祖 3年 庚午年(1570) 正月부터 12月 8日 辛丑日 臨終까지의 經過를 상세히 記錄하고 있다. 12月 4日 丁酉日에 從子 甯에게 命하여 遺戒를 쓰게 하였다. 첫째는 禮葬을 사양하고 둘째는 碑石을 세우지 말고 단지 조그만한 돌에다 그 前面에는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기고 그 後面에는 간략하게 鄉里와 조상의 내력과 志行 出處를 朱子家禮에 맞게 쓰라.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짓는다면 奇高峰같은 나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사실에 지나치게 과장하여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터이므로 나는 내 손으로 나의 뜻한 바를 自述하려고 먼저 銘文만을 지었고 그 나머지는 이력저력하다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草稿가 여러 초서속에 함부로 섞이어 있을 것이니 찾아 내거든 그 銘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四方에 둘러 설터이니 너의 行喪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니 모든 일을 반드시 禮를 아는 有識한 사람에게 물어서 해야 오늘날의 禮에도 맞고 옛 법도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 두어 가지였다⁵⁰⁾고 한다.

III. 聖學政治思想

1. 戊辰六條疏의 政治思想

戊辰六條疏는 退溪가 即位한 지 얼마되지 않은 十七歲된 宣祖에게 箴이 되게 올린 것이다. 때는 退溪 六十八歲(1568年) 戊辰年 八月이었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이 때에도 政治는 治亂의 連續過程에서 小人의 陰謀의 消長은 다를 바가 없었다.

六條의 첫째는 繼統을 重히 하여 仁孝를 온전하게 할것(一曰重繼統以全仁孝)⁵¹⁾

孝는 百行의 근원이니 한가지 行이라도 흠이 있으면 純孝가 못되며, 仁은 萬善의 長이니 한가지 善이라도 不備함이 있으면 全仁이 못되는데 예로부터 人君은 누구나 至大・至重한 君位의 一統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至大・至重한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적어 孝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있고 仁으로서는 道를 다하지 못한 者가 많다. 正常의 경우에 處身함이 오히려 그러하거늘 或旁支로써 入繼한 君主로서는 仁孝의 道를 다하는 者가 더욱 적다고 한다.

또 옛 聖人이 本生의 恩이 重大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禮法을 制定하여 양자하여 아들로 삼으니, 이미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곧 仁孝의 道는 마땅히 養家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요 本生의 은혜는 도리어 이와 더불어 並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聖人이 義을 잡아 本生의 은혜를 줄이고, 은혜를 높여 後된 義를 完遂하게 하였다(是以聖人秉義以殺本生之恩隆恩以完所後之義)고 하고 私意에 의해서 旁支로 入繼하고 天命을 받아 實位에

50) 「退陶先生言行錄」 卷之七(「增補退溪全書」 四) 年譜下條.

51) 「退溪先生文集目錄下」 卷第六(「增補退溪全書」 一) 疏條.

오를때 宗社의 付託과 백성들의 받들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란 반 위에 물을 얹지르지 않는 것보다 어렵고 착함은 바람 앞에 촛불 보전하기 보다 어려운 것이며, 옛말과 같이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孝道하는 마음은 妻子 때문에 衰하여 진다(心難至於盤水善難保於風燭古語云木腐而蟲生孝妻衰於子).

지금의 仁愛의 마음과 孝順의 行實은 순수하지만 다른 때에 耳目을 가리는 것이 잡다하게 닥치고 愛憎의 흔들림과 유혹됨이 아울러 일어나서 날이 지남에 일에 소홀하고 情에 굴리게 되면 그때 殿下의 마음이 能히 밖으로 부터의 변화를 받지 않고 心中에 변함없이 그날같이 卓然히 善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경계하고 있다.

要컨대 옛부터 入繼하는 君主의 舜倫之教에 得罪하는 까닭이 마음에 歸結된다. 마음은 盤 위의 물을 얹지르지 않는 것보다 어렵고 善함은 風前의 촛불을 保全하기 보다 어려우니 聖王의 定法과 先儒의 定論인 天理人倫의 極致를 털끝만한 私意도 排除하여 마음 씬을 恩惠를 높이고 義를 잡아 全仁 그리고 純孝되게 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孝는 百行의 근원이니 한가지 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純孝가 못되며 仁은 萬善의 長이니 한가지 善이라도 不備함이 있으면 全人이 되지 못한다.⁵²⁾

둘째는 讒訴와 이간질을 막아서 兩宮을 친근하게 할 것(其二曰杜讒間以親).

孝와 慈의 道는 天性에서 나와서 衆善의 으뜸이 되며 그 恩惠가 지극히 깊고 그 人倫이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이 가장 切實하다고 하고 지극히 깊은 은혜를 가지고 지극히 무거운 人倫에 따라 가장 절실한 情을 行하는 것이니 事理로 보아서는 마땅히 극진히 다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하지만 或 孝道가 이지러짐이 있고 자애하는 誠성이 또한 없어지는데에 이르러 甚한 者는 至親이 사랑이 되어 돌보지 아니함이 있으니 보통사람들도 진실로 이것을 면하지 못하는 者가 있지만 帝王의 家庭에 있어서 이러한 근심이 더욱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릇 情勢가 막히기 쉽고 참소와 이간이 더욱 많은 까닭이다. 宮殿이라고 하는 곳은 嚴하고 날마다 나아가 뵈기에 事勢가 혹 막히고 일은 복잡다단하여 情이 혹 막히고 뭉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情勢가 막히기 쉽다는 것이오, 참소와 이간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兩宮 사이에는 左右에서 가까이 모시는 嬪嬙과 여자들이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들의 성격이 대체로 음흉사악하고 교활하여 간사함을 끼고 사사로운 생각을 품어 亂을 좋아하고 禍를 즐기며, 孝慈가 무엇인지 禮義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섬기는 일만을 소중히 여겨 서로 勢를 잘라 對立하여 많은 것을 다루고 적은 것을 비교하고 은혜와 원망이 잠깐 사이에 생기며, 利害가 이들의 向背에 따라 決定되며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하며 情狀이 萬가지로 나타나 귀신이나 불여우와도 같이 혹은 激하여 怒하게도 하고 或은 속여서 무섭게도 한다는 것이다.

52) 上同.

혹시라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 믿게 되면 자연히 不孝가 되어 어버이를 不慈에 빠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대개 집안 법도가 바르고 兩宮이 화락하면 이 무리들이 간사한 꾀를 쓸 여지가 없고 반드시 서로 構陷하고 서로 시기하여 主人이 어둡고 倫常이 어긋난 다음에야 그 꾀를 부려 참소가 行해지는 바 이것이 小人과 女子의 通患이다.⁵³⁾

또컨대 人君의 自治如何에 달려 있으니 君主는 “履霜”의 戒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坤卦 初六의 爻辭 “履霜하면 堅氷이 至하느니라”라고 하는 驚戒는 象辭 “履霜堅氷陰始凝也馴致其道至堅氷也”와 같이 陰氣가 처음 凝固된 것이 서리(霜)이다. 陰氣가 盛한 때는 물이 얼어서 堅固한 얼음이 된다. 서리를 밟는 季節이 되면 곧 堅固한 얼음이 언다. 小人은 미미하나 자라나서 점점 盛하게 되며, 邪惡의 움직임은 처음은 微細한 것이라도 버려두면 큰 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易의 姤卦, 初六의 爻辭 “羸豕蹢躅”과 “家人卦”의 뜻을 거울로 삼고 小學의 明倫의 訓을 法으로 삼아 自治를 嚴하게 하라고 한다.

以上과 같은 思想은 “修齊治平”의 儒敎政治의 目標를 보아서 매우 간절한 陳言이며 君主의 “心之德”을 강조하는 思想이라고 할 것이다.

세제는 聖學을 돈독히 함으로써 政治의 根本을 삼을 것(其三曰敦聖學以立治本).

帝王學은 그 心法의 要點이 大舜의 禹에게 命한 말에 淵源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人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여야 允執厥中하리라⁵⁴⁾ 하였다.

대저 天下로써 서로 傳할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天下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부탁하는 말이 政治에 있어서 이 보다 더 급한 것이 없거늘 舜이 禹에게 정중히 타 이름이 이와 같은 말에 지나지 아니 하였으니 이 어찌 學問을 하여 德을 이루는 것으로써 政治의 大本을 삼을 것이 아니겠는가? 精一執中은 學問하는 큰 법이니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天下의 政治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옛 聖人의 말씀이 이러하니

53) 上同.

54) 여기에서 十六字의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論語」에는 “堯舜이 가라사대 咨嗟 그대 舜아 하늘의 帝王交替의 차례數가 그대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알맞은 것을 잡아라(誠實하게 中庸의 道로써 政治하라.) 四海가 困窮하면 하늘의 祿이 영원히 끈여지리라”(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 四海困窮天祿永終 堯曰第二十)하고, 「書傳」에는 “人心은 오직 危殆하고 道心은 오직 적으니(미미하여 드러나지 않으니)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道心과 人心의 區別을 정미롭게 살피서 兩者를 혼동하지 말고 道心이 人心을 지배하는 마음의 本來狀態를 한결같이 지켜 나가야) 진실로 그 中道를 잡으리라”(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大禹謨) 이의 註釋을 해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知覺이니 속에 주장하여 밖에 應하여 준다. 그 마음이 形容과 氣運에 發한것을 人心이라 하고, 그 義理에서 發한것을 道心이라 한다. 人心은 사사롭기 쉽고 공변되기 어려운 故로 위태하고, 道心은 밝히기 어렵고 어두워지기가 쉬운 故로 微微한지라. 그러므로 정미롭게 살피서 형태와 氣質의 사사로운 마음을 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지켜서 義理의 바른대로 순전히 나아가서 道心이 항상 주장이 되고 人心은 道心の 命을 들으면 人心의 위태로움이 편안해지고 道心の 微한 것이 나타나서 動靜과 言行이 자연히 過不及의 差가 없어져서 진실로 能히 中道를 잡을수 있다. 堯舜이 舜인금에게 말하는데 다만 그 中道만 잡으라고 한데, 이제 舜인금이 禹인금에게 또 그 所以를 미루어나가 자세히 일러준다. 대개 옛 聖人이 장차 天下로써 남에게 줄때 일찌기 그 나스리는 方法을 아울러 전하지 아니 하지 않았다. 經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으니 이 뒤의 人君이 이것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 지키지 아니하여서야 되겠는가?

聖學이 至治의 根本(聖學爲至治之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舜의 이 말은 위태롭고 微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만 말하고, 그 위태롭고 微하여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精一만 가르쳐 주고 精一하는 法을 보여 주지 아니하여 뒷 사람들이 이에 의거하여 道를 진실로 알고 實踐하려고 하여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列聖이 서로 계승하여 孔子에 이르러 그 法이 크게 갖추어지니 大學의 格至誠正과 中庸의 明善誠身이 그것이다.

그 위에 儒學者들이 일어나 朱子에 이르러 그 학설이 크게 밝혀졌으니 大學과 中庸의 章句와 或問이 이것이다. 이제 이 두 冊을 배워 眞如 實踐의 學問을 하면 中天에 해가 뜬 것 같아서 눈을 뜨면 다 보이고, 큰 길이 앞에 놓인 것 같아서 발을 들면 밟을 수 있으나, 人君으로서 能히 이 學問에 뜻을 두는 경우가 적고 뜻을 두더라도 能히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이는 더욱 드물다. 이것이 道가 傳하여지지 않는 까닭이며 政治가 옛과 같지 못한 까닭이라고 陣言한다.

要컨대 致知와 力行的 並進이 聖學政治思想의 重要한 課題가 된다.

먼저 致知에 대하여 이렇게 陳言한다. 나의 性情과 形色(形體, 용모와 육체적 機能)과 일상생활의 몇몇한 倫理의 가까운 것으로 부터 天地萬物과 古今事變의 허다한데 이르기까지 진실한 이치와 지당한 법칙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른바 天然自有的 中이다. 그러므로 博學, 審問, 慎思, 明辨치 아니할 수 없으며 이 네가지는 致知의 條目인데 이 중에서도 慎思가 더욱 소중하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求하여 증험이 있고 일음이 있는 것을 말한다. 能히 마음에 증험하여 그 理와 欲, 善과 惡의 幾微와 義와 利, 是와 非의 判別을 밝게 가려서 精微롭게 연마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면 危微의 까닭과 精一의 方法을 잘 알게 된다.⁵⁶⁾

이 네가지의 累積한 공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절차와 條目은 或問에 자세히 있다. 그에 따르면 敬으로써 主要한 方法을 삼고 事事物物에 있어서 그 所當然과 所以然의 까닭을 窮究하지 않음이 없으며 沈潛反覆하고 玩索體認을 극치에 이르게 하여 오랜 歲月에 功力이 깊어지면 일조에 모르는 사이에 의혹이 적연히 가시게 되고 시원하게 貫通하는 바가 있게 되니, 이때에 비로소 體와 用이 한 근원이요 顯과 微가 틀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危와 微에 昏迷되지 않고 精一에 眩惑되지 아니하여 執中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眞知라고 한다.⁵⁷⁾

다음은 力行에 관한 陳言이다 誠意는 반드시 幾微에 살피서 터럭 만큼의 不實도 없게 하고, 正心은 반드시 動靜에 살피서 한가지 不正한 일이라도 없게 하고, 修身은 한가지라

55) 思者何也求諸心而有驗有得之謂也.

56) 能驗於心而明辨其理欲善惡之幾義利是非之判 無不研精無少差謬則所謂危微之故精一之法可以眞知其如此而無疑矣.

57) 因其發端而益致其積累之功其次第節目依或問所示之詳敬以爲主而 事事物物莫不窮其所當然與其所所以然之故沈潛反覆玩索體認而極其至於歲月之久功力之深而 一朝不覺其有洒然融釋豁然貫通則始知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者眞是其然而不斷於危微不眩於精一而中可執此之謂眞知也.

도 편벽된 데 빠지지 않도록 하고, 齊家は 하나라도 편벽되게 치우치지 않도록하여 戒懼謹獨하고 強志不息하는 이 몇가지가 力行的 節目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心과 意가 가장 關係가 깊다. 마음(心)은 天君이며 意는 그 發한 것이다. 먼저 그 發하는 바를 성실히 하던 그 한가지 성실로써 萬가지 거짓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니 天君을 바로 잡으던 人驗의 모든 기관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행동하는 바가 성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⁵⁸⁾ 이와 같은 공부의 그 규모와 宗旨는 「大學或問」과 「中庸或問」 두 책에 보이는 바, 그 교훈에 따르면 敬을 주로 하여 隨時, 隨處에 생각할 때마다 잊지말고 일마나 조심하여 만가지의 더러움과 모든 욕심이 마음 속에서 씻어지고 五常과 百행이 至善으로 언마되고 먹고 쉬는 동안과 다른사람과 수작하는 때에도 義理가 몸에 배이고 懲忿窒慾과 改過遷善을 정성되고 全一한 데로 힘을 쓰고 廣大, 高明하되 禮法에 떠나지 않고 至誠의 德을 갖춘 聖王은 人間으로서 最高의 知性과 德行을 지님으로 人心과 物情을 다 알고 그 處理를 合當하게 할 수 있으므로 天地萬物을 生長化育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天地와 더불어 並立하며 셋이 될 수 있으며, 天下의 大經과 經綸 곧 政治에 있어서 五倫의 大法를 잘 계획하고 實施하되 不愧于屋漏 곧 사람이 못보는 곳에서 부끄러움이 없어라 하는데에 근원하도록 하여야 한다.⁵⁹⁾

이와 같이 참된 공부를 쌓아 時日이 오래되면 자연히 義가 精해지고 仁이 찰수록 그만 두고저 하여도 그만 들수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聖賢의 中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 實踐의 효험이 여기에 이르면 道가 이루어 지고 德이 서게 되니 政治하는 根本이 여기에 있다. 사람을 取하는 法則은 과연 自己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自身이 바르던 저절로 群賢이 함께 나오고 功績이 크게 빛나 세상을 융성하고 태평하게 하며 백성을 仁壽의 경지에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⁶⁰⁾

이 학문은 글귀에 얽매이고 詞章에만 힘쓰는 것과는 달리 敬으로 根本을 삼고 理致를 窮究하고 致知하여 몸에 돌이켜 참됨을 실천하는 데 이르러서는 妙한 心法이며 道學을 傳하는 要諦인데 帝王과 常人이 다를 것이 없다. 眞知와 實踐은 수래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안되며 사람의 두 다리가 서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으므로 程子是 致知하고서 公경함에 있지 아니함은 없다(程子曰未有致知而不在敬者)고 하였으며, 朱子は 躬行함에 工夫가 없으면 理를 窮究할 곳도 없다(朱子曰若躬行上未有工夫亦無窮理處)고 하였다.

위태로운 것이 人心이라 歡에 빠지기 쉽고 理에 돌아가기 어려우며, 微한 것이 道心이라 잠잠 理에 눈을 뜨다가도 歡에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에 人主의 學이 대개 시작이

58) 誠意必審於幾微而無一毫之不實正心必察於動靜而無一事之不正 修身則勿陷於一辟齊家則毋狃於一偏戒懼而謹獨強志而不息數者力行之目也而數者之中心意爲最關心爲天君而意其發也 先誠其所發則一誠足以消萬僞以正其天君則百體從令而所踐無非實矣.

59) 規模宗旨遵二書所垂之教敬以爲主而隨時 隨處念念提撕件件兢兢萬累衆欲洒灑於靈臺五常百行磨習乎至善食息酉州醉而涵泳乎義理懲窒遷改而懲勉乎誠一廣大高明不離於禮法參贊經綸皆原於屋漏.

60) 如是積眞之多歷時之久自然義精仁熟欲不罷能而忽不自知其入於聖賢中和之域矣 其實踐之效至此則成德立而爲治之本於是乎在取人之則果不外身自見群賢彙征積用成熙措世於隆乎納民於仁壽有不難矣.

있고, 終이 없거나 始에 부지런하고 終에 게으르며, 始에 조심하고 終에 放肆하여 한 걸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마침내 德을 滅하고 나라는 그르치는 結果가 되는 者가 많으니 帝王相傳이 執中의 實을 成就시키려던 精하게 하고 一하게 하는 工夫가 아니고 무었으로써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⁶¹⁾

그래서 傳說의 말과 易乾性文言傳을 引用하여 第三條의 끝을 맺고 있다. 傳說은 말하기를 “學은 뜻을 겸손하게 하고 始終 끊임없이 배움을 생각하면 그 德이 모르는 사이에 닦여진다”(傳說曰惟學遜志念終始典于學厥德修罔覺)고 하고, 孔子는 “이를 배를 알아서 이르면 可히 더불어 幾할 것이며 마칠 배를 알아서 마치면 可히 더불어 義를 保存할 수 있다”(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可與存義也)고 하였다.

네째 道術을 밝히 人心을 바로 잡을것(其四曰明道術以正人心) 唐虞三代之 盛世에는 道術이 크게 밝아 다른 岐路에 惑됨이 없었으므로 人心이 바르고 政治와 敎化가 행하기 쉬웠으나 周나라가 쇠약하게 된 이후로는 道術이 밝지 못하여 사 특한 學說이 아울러 일어나 人心이 바르지 못하여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고 敎化시키려하여도 敎化하기 어려웠다⁶²⁾고 하고, 道術이란 天命에서 나와서 彝倫에 대하여 天下와 古금이 같이 말미암는 길(何謂道術出於天命而行於彝倫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이라고 한다.

堯舜禹 三王은 이것을 알고 그 位를 얻었으므로 혜택이 천하에 미치었고, 孔·曾·思·孟은 이것을 알지만 位를 얻지 못하여 가르침이 萬世에 傳하였다. 中間에 宋代諸賢들이 이 道를 크게 闡明하여 萬世에 傳하였으며, 우리 東方은 箕子의 洪範이 傳함을 잃어버리고 알 수 없다가, 麗末에 程朱의 글이 처음 이르러 道學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道術을 밝히고 人心을 바로 잡음으로써 新政의 獻策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밝히는 일(其明之事)에 있어서도 또 本末先後緩急의 施策이 있고 그 本末에 또 虛實의 다름이 있으니 人君의 躬行心得한 것에 根本하여 民生의 人倫日用的 敎化에 行하는 것이 본이요 남의 法制를 따르고 文物의 걸치래나 하고 現行의 것을 옛것으로 고치어 모방하고 比較하는 것이 末이다. 本은 먼저 할 바이니 急한 것이요, 末은 천천히 하여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道를 얻어 君德이 이루어지면 本末이 다 唐虞의 治가 되고 그 道를 잃어 君德이 그릇되면 本末이 모두 虛하여 末世의 禍가 되는 것이니, 虛名을 믿지 못할 것을 알고 要法을 求하여 道學을 밝히려고 한다면 既述한 眞知와 實踐의 說을 깊이 銘心하시어 敬으로써 시작하고 敬으로써 끝을 맺을것을 陳言한다.⁶³⁾

그리고 당시 人心이 不正한 상태와 그 要因은 이러하다. 異端의 害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老莊의 虛誕은 가끔 즐겨 尊崇하여 聖人을 侮瀆하고 禮義를 멸시하는 風習이 더

61) 成就於帝王相傳執中之學非精之一之之功何以哉.

62) 唐虞三代之盛道術大明而無他岐之惑故人心得正而治化易治也 衰周以後道術不明而邪惡並興故人心不正治之而不治化之而難化也(戊辰六條疏其四)

63) 誠能知虛名之不可恃求要法以明道學請必深納於臣前所論眞知實踐之說敬以始之敬以終之.

러 일어나며, 管仲商鞅의 術은 요령히 傳述되지는 않았으나 공리를 계획하고 이익을 꾀하는 폐단은 오히려 고질이 되고, 鄉原의 德을 어지럽히는 습관은 보잘 것 없는 무리들이 세속에 아부하는데에서 시작되고, 俗學의 方向昏迷의 폐환은 科擧보는 사람들의 名利追逐에서 더욱甚하여졌다. 하물며 名利를 찾고 仕宦을 求하는 길에 있어서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하였다가 저렇게 하고 속이며 저버리는 무리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다.⁶⁴⁾

自古로 人君이 처음엔 淸明하여 그 政治가 불만 하다가도 얼마 뒤에는 姦邪한 무리들에게 멀어지는 바가 되고 異端에 미혹하여 功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者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道를 잃은 것을 밝은 거울로 삼아 뜻을 굳게 잡고 始終一貫하여 變하지 말고 道를 日月같이 밝히고 妖氣를 숙청하여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講道와 求治를 막론하고 꾸준히 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 일어나려고하는 선비와 스스로 새로와지려고 하는 백성이 다 大道에 오를 뿐 아니라 전날의 사악한 무리와 잔뜩한 잡배들도 또한 장차 神化에 따라 變하게 될 것이라고 易의 恒卦 彖辭中 “聖人이 그 道에 오래 있으면 天下가 化한다”(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는 구절과 「孟子」盡心章의 “君子는 常道에 돌아 갈 뿐이다. 常道가 바르게 되면 庶民이 일어나고 庶民이 일어나면 이에 邪惡함이 없을 것이다”(君子反經而已矣經正則庶民興庶民興斯無邪惡矣)라는 구절을 引用하여 끝을 맺는다.

다섯째 腹心을 미루어 耳目을 通할 것(其五曰推腹心以通耳目)

한 나라의 國體는 사람의 身驗과 같다. 사람의 몸에서 머리(元首)는 위에 있어서 통솔하여 臨하고 배와 가슴(腹心)은 가운데에서 이어받아 운영하고 귀와 눈은 두루 통달하여 호위하여 깨우쳐 주니 그런 뒤라야 일신이 편안할 수 있다.⁶⁵⁾

임금은 한 나라의 元首요, 大臣은 그 腹心이요 臺諫은 그 耳目이다. 이 三者가 서로 기나려 서로 이루는 것이 나라를 가지는 불변의 常勢요 天下古今에다 아는 바이다.⁶⁶⁾

人君으로서 大臣을 信任하지 않고 臺諫의 말을 듣지 않는 者는 사람이 그 腹心을 스스로 꿰으며 그 耳目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으니 머리만으로 홀로 사람이 될 理가 없다. 信任하더라도 信任이 道에 따르지 않고 求함이 能히 잘못을 바로잡아 善으로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匡濟輔弼) 賢者를 求하지 않고, 오직 아부하고 잘 순종하는 者를 求하여 그 사사로운 일이나 이루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얻은 者는 잔사하고 政治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면 반드시 흉악하여 權力을 擅斷하는 사나이가 되어 버린다. 임금이 이런 욕심을 만족시킬 사람을 腹心으로 삼고 臣下는 이런 임금으로써 自己의 욕심을 채우는 元首로 삼아서 위와 아래가 서로 가리우고 서로 결탁하여 아무도 능히 그 사이를 갈라놓

64) 東方異端之害……餘皮遺燼尚有存者 老莊之虛誕或有耽尚而侮聖蔑禮之風間作管商之術業幸無傳述而計功謀利之弊猶錮鄉原亂德之習濫觴於末流之媚世俗學迷方之愚燎原於擊子之逐名而 況名途復路乘機抵巇反側欺負之徒亦安可謂盡無也(戊辰六條疏其四)

65) 一國之體猶一人之身也 人之一身元首居上而統臨腹心承中而幹任耳目旁達而衛喻然後身得安焉(戊辰六條疏其五)

66) 人主者一國之元首也而大臣其腹心也臺諫其耳目也 三者 相待而相成實有國不易之常勢而天下古今之所共知也

을 수 없게 된다. 한 硬直한 선비가 있어서⁶⁷⁾ 칼날을 건드리면 반드시 귀양보내고 죽임을 더하여 양념과 가루를 만들고 만다. 이 때문에 忠臣과 賢人은 다 쫓겨나서 나라 안이 텅 비게 되고 耳目의 司職은 모두 當路者의 私人이 되어 버리니 이른 바 耳目이란 것이 元首의 耳目이 아니라 當路者의 耳目이 된다. 이에 이르러 耳目을 빙자하여 세력을 고취하고 기업을 부채질하여 權臣의 惡을 편들어 주면 腹心으로 말미암아 惡이 쌓이고 禍가 쌓여 마침내 어두운 임금에게 사특하게 하고서는 오만하게 各自 자기 욕심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實은 元首의 毒氣가 腹心에서 발생하였고 腹心の 毒虫이 耳目에서 起因한 것인 줄을 모른다⁶⁸⁾고 하여 腹心과 耳目의 職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며 匡濟輔弼의 賢者를 求하여야 하고 道에 따라 信任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君主가 닦아야 할 德을 陳言하였다.

또 易의 乾卦 九五爻의 文言中 “同聲相應，同氣相求，水流濕，火就燥，雲從龍，風從虎”를 引用하여 聖主가 있으니 賢臣이 없을 것이 염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君主는 오직 하늘의 밝은 命을 돌아보고 몸을 공손히 하여 南面의 자리를 지켜 정성을 腹心에까지 미루고 눈을 밝히고 귀를 통달케 하여 백성에게 中을 세우고 위에서 표준을 세우시어 一毫의 사사로운 뜻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흔들지 못하게 하면 輔相의 지위에 있는자는 반드시 모두가 마음을 털어 놓고 생각하는 바를 임금에게 말하고 계책을 진술하며 道를 의논하여 나라를 경륜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게 될 것이요. 體諍의 列에 있는 者도 누구나 다 면대하여 격고 조정에서 다투며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잃은 것을 좁는 것으로 자기의 직책으로 삼을 것이다.⁶⁹⁾

三勢가 일치하여 精을 모으고 神을 통해서 一體가 되면 朝廷에는 善政, 나라에는 善治가 있게 되고 世上이 隆平하게 된다.⁷⁰⁾

益이 舜에게 敎戒하여 말하기를 “근심 없을 때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말고 편히 놀지 말며 지나치게 즐기지 말며 어진이에 맡기면 疑心치 말고 나쁜이를 내치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하였다. 임금 마음이 한번 경계를 佚樂에 빠지면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여 法度가 뒤따라 무너질 뿐 아니라 어진 이도 끝내 맡겨 쓰지 못하고 간사한 者를 능히 버리지 못할 것은 事理와 形勢의 필연의 귀결이다.⁷¹⁾

그러므로 비록 편안히 잘 다스려지는 조정이라도 或 不幸히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大

67) 古之人君有不信任大臣不聽用臺諫者譬如人自決其腹心自塗其耳目固無元首獨成人之理其或有信任大臣而不由其道其求之也不求其能匡濟輔弼之賢而惟求其阿諛順旨者以謀遂其私是所得者非姦邪亂政之人則必兇賊擅權之夫君以此人為濟欲之腹心臣以此君為濟欲之元首上下相繫締結固人莫能間而一有硬直士

68) 觸犯其鋒則必加之竄謫誅戮為藿(양념 할제) 爲粉而後已焉由是忠賢盡逐國內空虛而耳目之司皆爲當路之私人矣則所謂耳目者非元首之耳目也乃當路之耳目也於是馮耳目而鼓勢煽焰以黨助權臣之惡由腹心而積戾稔禍以蓄成閹主之惡慘然自以爲各得所欲而不知元首之鴆毒發於腹心腹心之蛇蠍起於耳目也

69) 唯當願諫天之明命恭已南面推誠 腹心明目達聰建中于民建極于上不以分毫私意撓壞於其間則居輔相之位者必皆以沃心陳謨論道經邦自任處諫諍之列者無不以面折廷爭補闕拾遺

70) 三勢洞然聚精會神通爲一體若是而朝無善政國無善治世不致隆平者

71) 益之戒舜曰敎戒無虞罔失法度 罔遊于佚罔淫于樂任賢勿貳去邪勿疑人主之心一怠於敎戒而流於佚樂則法度之壞不俟終日而賢之不終任 邪之不克去亦理勢之必然也

臣은 반드시 임금의 惡한 것에 迎合하여 國權을 도적질할 것을 피하려는 者가 있고 小臣은 반드시 勢力있는 者에 아첨하여 自己의 私利를 탐하려는 者가 있어서 마침내 前日의 腹心이 變하여 이제는 도적이 되고 前日의 耳目이 變하여 이제는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전날의 한몫이 변하여 이제는 變하여 胡越이 되어 衰亂의 形勢와 위태롭고 亡할 事態가 目前에 당도한다. 臯陶의 노래에 이르기를 元首가 煩碎하면 股肱이 게으르고 萬事가 타락한다.” 萬事가 타락하는 責任은 元首에 있다. 宋나라 臣下 王介之는 말하기를 “宰相으로서 宮禁의 意向을 받들며 給舍로서 宰相의 風旨를 받들게 되면 朝廷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 뜻은 邪徑의 害됨이 腹心이나 耳目의 地位에 따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呂公弼의 仁宗에게 諫한 말에는 “諫官은 耳目이 되고 執政은 股肱이 된다. 股肱과 耳目은 반드시 서로 用이 되어야 온 몸이 편안하고 元首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邪經을 밝지 않고 서로 用이 되는 것이 至善의 道라고 한다는 것이다.⁷²⁾

여섯째, 修省을 정성스럽게 하여 하늘의 사랑을 받을것(其六曰誠修省以承天愛)

君主는 天心이 君主를 사랑하는 까닭과 君主가 天心을 받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익수히 강구하여 참되게 驗行해야 거의 天心을 받들고 君道를 다할 수 있게 된다.

天地의 大德은 生인 바 天地사이의 生을 먹음은 類가 부지기수이나 특히 사람은 形狀이 닮았고 最靈하며 天地의 마음(心)이 되어 있는 것이니 그 仁愛가 매우 크다. 하늘은 이 마음을 있어도 스스로 베를지 못하고 반드시 最靈한 가운데도 그 聖賢한 元良으로서 德이 神과 사람에 和協한 者를 돌보아 임금으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기를것을 부탁하여 그 仁愛의 政治를 行하는 것이다.⁷³⁾

이미 命하고 도와주고 四方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나 그래도 或 태만하여 경솔한데서 환란이 생길까 염려하여 이에 또 이른바 災異와 警譴의 加責이 있다.⁷⁴⁾

天命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매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能히 이렇게 되면 平日에 반드시 마음을 잡고 몸을 삼가고 바르게 하여 능히 공경하고 정성을 다함으로써 上帝를 받들어 빛나게 함이 극진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災譴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허물을 反省하고 政事를 닦아 能히 근신하고 성실함으로써 天意를 感格시킴에 더욱 마음을 쓴다. 그렇게 되면 政治가 紊亂하여 지지 않고 바로잡히고 나라가 危機에 이르지 않게 安保될 것이니 失敗없이 安全함을

72) 故雖以治平之朝其或不幸而一有此兆則大臣必有逢君之惡以圖竊國柄者小臣必有寧媚於寵以規變已利者遂使前日之腹心今變爲寇讎前日之耳目今變爲蔽蒙前日之一體今變爲胡越而衰亂之形危亡之事不待他時而立見於前矣臯陶之歌曰元首叢脞股肱惰哉萬事墮哉言萬事之墮實在元首也宋臣王介之言曰宰相而承宮禁意向給舍而奉宰相風旨朝廷紀綱掃地矣言邪徑之爲害無異於腹心耳目之地也至呂公弼之諫仁宗則曰諫官爲耳目執政爲股肱股肱耳目必相爲用然後身安而元首尊故臣以爲不由邪徑而能相爲用至善之道也

73) 天有是心而不能以自施必就夫最靈之中而尤眷其聖哲元良德協于神人者爲之君 付之司牧以行其仁愛之政

74) 既命之佑而綏寵四方矣猶恐其或怠而難生於所忽也於是乎又有所謂災異警譴之加焉

여기서 이를 수 있다. 오직 天心을 모르고 그 志를 삼가하지 않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 와 反對로 한다. 그래서 上帝가 震怒하여 禍敗를 내리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不得已해서 하는 것이니 그 또한 매우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⁷⁵⁾

君主는 上敬下恤하고 修德하여 政治를 하되 人心에 거슬리거나 上帝에 罪지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天變이 자주 일어나고 재앙이 함께 생겨 和氣가 應하지 않아서 브리 농사가 전멸되고 水災가 옛날에 비할 수 없이 참혹하며 風災와 우박과 메뚜기와 머루의 재앙 등이 수없이 나타나니 上天이 君主에게 무엇을 怒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天心이 君主를 사랑함이 깊고 경계함이 지극한 때문이며 天道는 멀지만 實은 가까운 것이며 天威는 至嚴하며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⁷⁶⁾

만약 晏然한 寵愛가 있는 줄만 알고 赫然한 威嚴이 있는 줄은 모르면 恐懼하는 마음이 날로 解弛해지고 邪僻한 情이 도리어 放肆하여 강물이 폭을 터놓은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災害를 내려 譴告해 놓고 怪異를 내려 警懼하게 하는 것이니 天心의 君主를 仁愛함이 深切하고 著明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⁷⁷⁾

그러므로 君主는 하늘에 대하여 마치 자식이 어버이에 대한 것과 같아서 어버이의 마음이 자식에게 怒함이 있으면 자식은 恐懼修省하여 怒하고 怒하지 않은 바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일을 다 정성껏 하고 孝道를 다하면 어버이는 그 誠과 孝에 기뻐하여 怒하던 일 마저 함께 渾化하여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⁷⁸⁾

君主는 어버이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 하늘 섬기는 道를 다 하시어 어느 일이나 修省하지 아니함이 없고 어느 때에나 恐懼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자기몸에는 비록 過失이 없더라도 心術의 隱微한 사이에 쌓여 있는 흠과 병통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며 宮禁內에서는 비록 家法이 본래 있었지만 威屬과 幽陰한 類들이 울려 받들고 찾아 뵈고 안개처럼 모여드는 파위의 일은 막아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諫言을 잘 받아 드리는 美德을 가지지만 때로 사사로운 뜻으로 굳게 拒否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요, 善을 즐겁게는 비록 色을 좋아 하듯하는 誠意는 가지지만 或 虛로써 억지로 求하는데까지 이르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살피야 한다.⁷⁹⁾

벼슬과 賞은 함부로 하여 功이 없는者는 요행으로 얻고 功이 있는 者는 不平으로 離

75) 其必能知天命之不易矣其必能知高在上而日監于茲不容有毫髮之可欺矣能如此則在 平日必有以秉心飭躬克敬克誠以昭受上帝者 無不盡其道矣其遇災譴必有以省愆修政克慎克實以感格天意者益能盡其心矣夫然則制治于未亂保邦于未危有平安而無禍敗可幾也惟其不知天心而不慎厥德者 一切反是故帝乃震怒而降之禍敗非天之所不得已也其亦可畏之甚也

76) 凡所以上敬下恤修德行政之間未嘗聞有招拂于 人心獲戾于帝事者然而乾文屢變時孽並作和氣不應兩麥全耗水災之慘振古所無風雹蝗螟衆異畢見不知上天何所怒於殿下 而如此哉天道雖遠而實邇天威至嚴而難玩小臣愚昧不敢妄度而爲言竊以仲舒之言推之此乃天心仁愛殿下之深而威警殿下之至也

77) 李相殷譯解, “戊辰六條疏”『退溪學報』第二輯, 退溪學研究院, 1974, 및 『국역 퇴계집』I, 고전국역총서, 參照

78) 故臣愚以爲君之於天猶子之於親親心有怒于子子之恐懼修省不問所經與非怒 事事盡誠而致孝則親悅於誠孝而所怒之事並與之渾化無痕矣

79) 推事親之心以盡事天之道無事而不修省無時而不恐懼聖躬雖未有過失而心術隱微之間 疵病山積不可以不淨盡宮禁雖本有家法而厥屬幽陰之類納謁霧集不可以不 過防聽諫雖如轉圜之美有時乎以私而牢拒在所當改樂善雖如好色之誠 或至於以虛而強求在所當審

散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지은 罪를 용서하여 罰을 면제하는 것은 惡한 者로 하여금 罪를 뉘하고 善한 者로 하여금 善을 입게 하여서는 안된다.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를 장려함으로써 名敎의 방위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儉約을 숭상하고 사치를 禁하여 公私의 財力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가히 대단히 할 수 없다. 祖宗이 이룩한 옛 憲章이 오래되면 弊가 생기는 것이니 조금 變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그 良法과 아름다운 뜻까지 모두 뜯어 고치면 반드시 큰 환란이 이를 것이요 朝廷의 高官들 가운데 「正」을 질시하고 異를 꺼리는 틈을 타서 일을 일으키는 者들은 미리 鎮靜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或 스스로 賢明하고 착한 이의 類와 작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떨어져 나감으로 困하여 서로 排擊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어 傷處를 입게 된다.⁸⁰⁾

오로지 守舊循常하는 臣下에게만 依賴하면 至治를 펼쳐 일으키는 데는 妨害되고 新進의 일 좋아하는 사람만 信任하면 禍亂의 端緒를 挑發하게 된다.

京外の 胥吏 奴僕들은 貢納品을 이리 같이 뜯어먹고도 오히려 不足하여 府庫를 도적질하여 비게 하고 鎮浦의 장수들은 범처럼 軍卒을 삼키고 오히려 차지 못하여 그 독이 이웃 마을에까지 두루 미쳐어 貫荒이 극심하나 救濟의 對策이 없고 변방에 도적이 일어날 것 같으나 君主는 天命을 깊이 알고 안으로 身心에 反省하여 敬으로 一貫해서 中斷이 없고 밖으로 政治를 닦아 벼물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여 거짓 꾸밈이 없도록 하고 天人の 사이에 自處하는 바를 앞에 말한 대로 극진히 하면 비록 홍수와 가뭄의 災殃과 譴警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恐懼修省의 힘을 베풀어 하늘이 주시는 仁愛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한 열여섯 가지의 일이 漸次 解消되고 고쳐져서 治平에 이를 수 있다⁸¹⁾고 하며 「書傳」太甲下の 伊尹의 말 “皇天은 따로 親함이 있지 않고 오직 잘 공경하는 者를 親하며 百姓은 항상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진 德을 가진 者를 생각하며 鬼神은 항상 변함없이 敬饗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성스런 祭享만 받는다”⁸²⁾는 것과 「詩」周頌我將篇의 “天威를 두려워하여 언제나 하늘의 뜻을 保全하라”⁸³⁾를 引用하여 이 條目的 끝을 맺는다.

退溪先生은 以上の 여섯 條目的 陳述이 實은 彝敎에 삼가하되 性과 道에 根本하고 聖賢에 根據하되 中庸과 大學에 바탕하고 史傳에 상고하되 時事에 證驗하였다⁸⁴⁾고 한 바와 같이 列聖列賢을 祖述하고 詩·書·易·禮 그리고 大學章句와 中庸章句 및 이 二書의

80) 爵賞母盡使無功者幸得而有功者解體赦有母數使爲 惡者獲免而爲善者受害尚節義厲廉恥以壯名敎之防衛者不可疎崇儉約禁奢侈以裕公私之財力者不可緩祖宗之成憲舊章積久而生弊者 雖不可不稍變通然或并與其良法美意而 一切紛更之必致大患緒紳之嫉正忌異伺釁而生事者固不可不預鎮靜然或自乖於賢德善類而互相排擊之必見反傷

81) 惟殿下深知天所以仁愛己者若是其非從然也 內以自反於身心者一於敬而無作輟外以修行於政治者一於誠而無假飾所處於天人之際者無所不用其極如前所云云則雖有水旱之災譴警之至 猶可施恐懼修省之力而承天與仁愛之心如臣所論十六事者亦將以次而消除更化以臻於治平矣

82) 書曰皇天無親克敬惟親民罔常懷于有仁鬼神無常享于克誠

83) 詩曰畏天之威于時保之惟聖明之留意焉則幸甚

84) 右六條所陳皆非有驚天動地震輝人耳目之說然而實謹於 彝敎而本於性道宗於聖賢而質於庸學稽之史傳而驗之時事以爲言(戊辰六條疏)

或問 論語, 漢書, 史記, 魏志 등 史傳 그리고 其他 몇몇 典籍에서 引用하면서 日用彝敎에서 精義入神의 雄大한 규모와 자상한 陳言은 聖學政治思想의 典範을 構成한 것이라고 敢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先生은 “그러하오니 殿下께서는 卑近하다하여 죽히 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迂闊하다 하여 할 必要가 없다 말고 반드시 먼저 처음 二條를 根本으로 삼고 더욱 聖學의 工夫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⁸⁵⁾고 한다. 그리고 工夫方法에 대해서 “너무 速히 효과를 거두고자 하지 말고 스스로 한계를 극지도 마시고 그 極致를 다하여 과연 여기에 얻은 바 있으시면 나머지 다른 일들도 날을 따라 일을 따라 더욱 밝아지고 더욱 충실하게 되어 理와 義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줌이 참으로 맛있는 고기가 입을 즐겁게 하듯이 될것”⁸⁶⁾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누구라도 堯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吾人의 性情은 참으로 堯舜이 될 수 있는 것이니 卑近하고 淺小한 것을 떠나지 않아도 實은 높고 깊은 그리고 遠大하고 無窮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⁸⁷⁾이며 “옛사람의 이른바 淵源을 더듬어서 治首를 밝혀내고 本末을 貫通하여 大中을 세운다는 것이 본래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⁸⁸⁾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公卿大夫들이 모두 이 說을 誦習하고 이 道에 從事⁸⁹⁾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聖學政治思想의 典範을 構成하는 戊辰六條疏는 勿論 나이 어린 宣祖에게 올린 上疏文이다. 宣祖를 爲한 것이던서 大小臣僚와 當代의 學者 그리고 後世의 學者와 백성을 위한 곧 옛을 이어서 앞을 여는 陳述이라고 할 것이다.

2. 「進聖學十圖劄」의 政治思想

① 「聖學十圖」를 올린 理由와 十圖의 構成

聖學十圖는 退溪先生이 68세 때(1568) 17歳の 어린 나이로 그 前年(1567)에 明宗이 昇退하자 곧 即位한 宣祖에게 올린 그림과 글이다.

明宗과 같이 宣祖는 退溪의 學問과 人格을 높이 평가하여 벼슬을 除授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번번히 力辭하여 上京하지 아니하였다.

年譜에 의하면 宣祖 二年 5월에 證政府右贊成을 바꾸어 判中樞府事에 任命하였는데 力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7月 入都하고 다음 달인 8월에는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館, 成均惟事에 任命되고 「戊辰六條疏」를 올렸다. 그리고 불편한 健康에도 不拘하고 여러번 經筵에 나아가 講義하였다.

民本政治에 입각한 憂君憂國의 충정으로 12월에 「聖學十圖」를 劄子와 함께 올렸다. 이 上疏를 하면서 退溪는 “내가 나라에 報答함은 이 그림에 그칠 뿐이다”(李滉進劄 上

85) 惟殿下勿以爲卑近而不足爲勿以爲迂闊而不必爲必先以首二條爲本而尤勤勵不息於聖學之功

86) 毋欲速毋自畫以極其至於此而果有所得則其他事固亦隨日隨事而益明實理義之悅心真是如獨參

87) 吾人之性情眞可爲堯舜不離乎卑近淺小而實有高深遠大而無窮者存焉

88) 古人所謂深淵源而出治道貫本末而立大中者初不外此

89) 今茲公卿大夫皆誦習此說而從事此道者也

聖學十圖…爲此圖以進一吾之報國止此圖而已, 「宣祖實錄」元年(戊辰) 12月朔)라고 하였다⁹⁰⁾는 것이다.

앞에서 「戊辰六條疏」를 考察하였거니와 그 第三條에서 “敦聖學以立治本”을 陳言하였는 바 이 第三條에서 聖學 곧 帝王學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帝王學은 그 心法의 要點이 大舜의 禹에게 命한 말에 淵源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人心을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여야 允執厥中하리라 하였다. 내저 天下로써 서로 傳할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天下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부탁하는 말이 政治에 있어서 더 急할 것이 없거늘 舜이 禹에게 正중히 타이르는 것이 이와 같은 말에 지나지 아니 하였으니 이 어찌 學問하여 德을 이루는 것으로써 政治의 大本을 삼을 것이 아니겠는가(豈不以學問成德爲治之大本也) 精一執中은 學問하는 큰 법이니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天下의 政治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옛 聖人의 말씀이 이리하니 聖學이 至治의 根本(聖學爲至治之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退溪가 「聖學十圖」를 올린 것은 君主로 하여금 學問成德·心之德으로써 政治의 大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聖學十圖」를 作成하여 올린 理由를 “進聖學十圖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河圖 洛書가 나오고 因해서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으나 道는 넓고 넓으니 어디로 부터 착수하고 古訓은 千萬가지이니 어디에서 부터 따라 들어갈 것인가. 聖學은 큰 端緒가 있고 心法은 至極한 要領이 있다는 것이다. 後賢들이 不得已 그것을 그림으로 揭示하고 說明하여 사람에게 入道의 門과 積德의 터전을 보여준다. 하물며 임금의 一心은 萬가지 기틀이 연유하는 바이요, 百가지 責任이 모이는 곳이요, 못 욕심이 互攻하고 못 사특함이 번갈아 들어오는 곳이니 한번 怠忽함이 있고 放縱이 繼續되면 山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⁹¹⁾

옛 聖帝 明王들은 이것을 근심하여 항상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가하며 小心畏懼하기를 날마다 하여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여 師傳의 官을 세우고 諫諍의 職을 꿰뚫어 앞에는 疑, 뒤에는 罔을, 左에는 輔, 右에는 弼이 있으며 수레 탈 때는 旅賁의 規가 있고 朝會를 받을 때는 官師의 법이 있고 책상에 기대고 있을 때는 訓誥의 諫이 있고 居寢에는 近侍의 箴言이 있으며 일예臨하였을 때는 警御의 引導가 있고 宴居에는 王師의 誦이 있고 소반과 식기, 책상, 지팡이, 刀劔, 창문에 이르기까지 무릇 눈이 가는 곳과 몸이 處하는 곳에는 어디나 銘이 있고 警戒함이 있어 그 마음을 維持하고 몸을 防範하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여 德이 날로 새로워지고 業이 날로 넓어져 조그마한 허물도 없고 도리어 크고 높은 名聲이 날았다.⁹²⁾

90) 琴章泰 “「聖學十圖」註釋과 朝鮮後期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第48輯, p.6, 退溪學研究院
91) 然而道之浩浩何處下手古訓千萬何所從入聖學有大端心法之有至要揭之以爲圖指之以爲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斯亦後賢之所不得已而作也而況人主 一心萬幾所由百責所萃衆欲互攻難防迭鑽一有怠忽而放縱繼續之則如山之崩如海之蕩誰得而禦之(進聖學十圖劄 并圖)

92) 古之聖帝明王有憂於此是以兢兢業業小心畏懼日復一日猶以爲未也立師傳之官列諫諍之職前有疑後有

後世의 君主가 天命을 받고 天位에 올랐으면 그 責任이 지극히 두겁고 지극히 큼에도 自治하는 道具는 하나도 이와 같이 嚴한 것이 없어 그 王公들과 億兆百姓들이 받드는 자리에서 편안히 스스로 聖人인체 하여 스스로 放恣하니 마침내 壞亂殄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조금도 怪異할 것이 없다.⁹³⁾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남의 臣下가 되어서 임금을 引導하여 道에 마땅하게 하려는 者는 그 마음을 쓰지 않는곳이 없다. 張九齡이 金鑑錄을 내놓은 것이나, 宋璟이 無遊圖를 드린 것이나, 李德裕가 丹戾六箴을 드린 것이나, 眞德秀가 幽風七月圖를 올린 것과 같은 것이 모두 愛君憂國하는 간절한 衷情과 陳善納諫하는 지극한 誠意 때문이니 人君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敬服치 않을 수 있으랴.⁹⁴⁾

그래서 聖學을 勸導하고 宸德을 輔養하여 堯舜의 理想에 이르기를 期함은 비록 사양하려 하여도 할 수 없다는 것⁹⁵⁾이다.

오직 옛 賢人과 君子들이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圖說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道에 들어가는 門과 積德의 기초를 가르친 것이 世上에 傳하여 日月과 같이 밝아 있어 이에 敢히 이것으로써 左右에 올려 나누어 옛 帝王들의 工誦器銘의 遺意에 대신하고자 하니 이것은 或 既往의 것을 借重하여 將來에 有益하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⁹⁶⁾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進聖學十圖劄”에서 찾아 본 “聖學十圖”를 올린 理由는 그 自體가 하나의 帝王學 곧 聖學의 大綱 그리고 驗系化라고 할 것이다.

賢人 君子나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과 圖說을 지어서 入道의 門과 積德의 기초를 가르친 것 가운데에서 가장 두더러진 것 일곱가지를 가렸는데 그 가운데 “第六 心統性情圖”는 程復心作의 上圖에 中·下圖는 退溪先生이 스스로 만들어 붙였고 그 나머지 셋은 先賢들의 說을 참고하여 그림을 自作하였으나 創作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림마다 밑에 退溪先生의 說明이 붙어 있다. 합하여 聖學十圖가 되는 것이다.

② 「進聖學十圖劄」의 思想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달이 없다. 河洛圖書가 나옴으로 부터 聖人이 그것에 基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道無形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고 하여 儒學 곧 聖學의 기본은 河圖 洛書에 있고 이에 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과타났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丞左有輔右有弼在與有旅賁之規位宁有官師之典倚几 有訓誥之諫居寢有管御之箴臨事有稽史之導宴居有工師之誥以至盤盂几杖刀劍戶牖凡目之所 寓身之所處無不有銘有戒其所以維持此心防範此身者若是其至矣故德日新而業日廣無纖過而鴻號矣

93) 後世人主受天命而履天位其責任之至重至大爲如何而所以自治之具 一無如此之嚴也則其小憫然自聖傲然自肆於王公之上億兆之戴終歸於壞亂於殄滅亦何足怪哉

94) 若張九齡之進金鑑錄宋璟之獻無逸圖李德裕之獻丹戾六箴眞德秀之幽風 七月圖之類其愛君憂國拳拳之深衷陳善納諫懇懇之至意人君可不深念而敬服也哉

95) 勸道聖學輔養宸德以期致於堯舜之隆雖欲辭之以不敢何可得也

96) 惟有昔之賢人君子明聖學而得心法有圖有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者見行於世 昭如日星茲敢欲乞以是進陳於左右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庶幾借重於既往而有益於將來

河洛圖書의 基本思想은 太極陰陽論이며 卦爻에 의하여 宇宙 大自然의 存在와 人間存在가 밝혀진다. 天地의 大法은 生이며 天地人 三才思想과 天地人 合一思想 그리고 人本主義와 民本主義政治思想이 導出된다.

退溪는 聖學十圖에 “뜻이 未盡한 바가 있어” 劄子에서 陳言한다고 하고 있다. 十圖와 그 圖說에서 다하지 못한말을 여기서 補充하고 있지만 聖學十圖를 통해서 행하여야 할 學問의 態度에 관한 매우 증욱한 것을 陳言하고 있다.

곧 孟子가 말하기를 마음(心)의 달은 職分은 생각하는 것(思)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⁹⁷⁾고 하고 箕子가 武王을 爲하여 洪範을 陳述할 때에도 또 “思는 睿요 睿하면 作聖한다”⁹⁸⁾고 하였으니, 대저 마음은 方寸에 갖추어 있으면서 至虛至靈한 것이며 그 理는 圖書에 나타나 있으면서 至顯至實한 것이다. 至虛至靈한 心으로써 至顯至實한 理를 求하면 마땅히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생각(思)하여 얻고 睿하여 作聖하는 것이 반드시 徵驗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心)의 虛靈도 만약 主宰함이 없으면 일을 앞에 當하여도 생각하지 못하고 理의 顯實도 照管함이 없으면 눈으로 항상 接하고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因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強調하고 至虛至靈한 마음으로써 至顯至實한 理를 求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孔子의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는 말을 引用하여 여기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익히어 참으로 實踐하는 것을 말한다⁹⁹⁾고 하였다.

聖門의 學은 마음에 求하지 않으면 어두워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하여 그 微에 通하여야 하고 그 일을 익히지 아니하면 위태하여 不安하므로 반드시 배워서 그 實을 實踐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思와 學이 서로 밝히고 서로 有益하다고 한다.

위의 理致를 깊이 깨닫고 먼저 立志하여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奮然히 學과 思의 工夫에 힘쓰라고 한다. 그런데 持敬하는 것은 또 思와 學을 兼하고 動과 靜을 貫하고 內와 外를 습하고 顯과 微를 一로하는 方道라고 한다.

그리고 持敬하는 方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齊莊靜一 속에 두고 이 理致를 學問思辨하는 사이에 窮究하여 보이지 않고 들

97) 「孟子」, 告子章句上, 鈞是章에 나온다.

公都子問曰鈞是人也或爲大人或爲小人何也 孟子曰從其大體爲大人從其小體爲小人曰鈞是人也或從其大體或從其小體何也曰耳目之官不思而蔽於物物交物則引之而已矣心之官則思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此天之所與我者先立乎其大者則其小者不能奪也此爲大人而已矣

98) 「書傳」註에 睿는 通乎微也라 하고 聖者無不通也라 하고 있다.

99) 夫心具於方寸而至虛至靈理著於圖書而至顯至實以至虛至靈之心求至顯至實之理宜無有不得者則思而得之睿而作聖豈不足以有徵於今日乎然而心之虛靈若無以主宰則事當前而不思理之顯實若無以照管則日常接而不見此又因圖致思之不可忽焉者然也 抑又聞之孔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學也者習其事踐履之謂也

리지 않는 곳에서 戒懼하기를 더욱 嚴하게 하고 더욱 공경스럽게 하여 隱微하고 幽獨한 곳에서 省察함은 더욱 精密하게 하여야 한다. 한 그림을 두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림에 專一하여 다른 그림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이 하고 한 일에 쫓아 익히면 당연히 그 일에 專一하여 다른 일이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하고, 매일 계속하여 或은 夜氣가 淸明한 때에 紬繹玩味해 보고 或은 日用酬酢의 지음에 體驗하고 복돋우면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되고 矛盾되는 일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매우 辛苦스럽고 快活하지 못한 苦痛을 면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옛 사람들이 이른 바 “將大進之幾”이니 또한 좋은 消息의 端緒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 沮喪하지 말고 더욱 마땅히 自信을 가지고 힘써서 참된 工夫를 오래 쌓으면 自然히 마음과 理致가 서로 융합하여 融會貫通하게 된다. 그래서 겹과 일이 서로 익숙하여져서 차츰 모든 것이 順坦하고 편하게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각각 그 하나를 專攻하였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화합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實로 孟子가 논한 바 “造詣를 깊게하여 自得하는(深造自得)”¹⁰⁰⁾ 경지이며 살아서는 그만 둘 수 없는 徵驗이다. 또 이것에 따라서 부지런히 힘써 내 재주를 다 하면 顏子の 仁을 어기지 않는 마음(顏子之心不違仁)¹⁰¹⁾과 나를 爲하는 事業이 모두 그 속에 있게 될 것이며 曾子の 一貫된 忠恕와 傳道の 責任(曾子之忠恕一貫而傳道之責)이 그 몸 속에 있게 된다. 日用 속에서 敬畏를 떠나지 않으면 中和育育¹⁰²⁾의 功을 이룰 수 있고 德行이 彝倫에 벗어나지 않으면 天人合一의 妙를 여기저기 얻을 수 있고 비록 그림과 說明은 겨우 열 幅紙上에 적어 놓은 것에 不過하고, 생각하고 익히는 工夫는 다만 平日 燕處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道를 깨달아 聖人되는 要領과 근본을 바로잡아 政治를 經綸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 있다고 하여 持敬의 方法을 상세히 또 깊게 그리고 丁寧하고 人間은 누구나 함이 있으면 舜이 될 수 있는 存在이다.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萬物이 育焉할 수 있으며 德行이 彝倫에 벗어나지 않으면 天人合一의 妙를 얻을 수 있으며 이 「聖學十圖」와 그 說明이 道를 깨달아 聖人되는 要領과 政治를 經綸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 갖추어 있다고 斷言하고 있다. 그러므로 「進聖學十圖割」의 思想은 聖學政治思想의 大綱이며 樞要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聖學十圖」의 政治思想

① 第一太極圖

周濂溪의 太極圖 및 圖說과 朱子の 解說 그리고 退溪의 補說로 이루어져 있다. 太極圖說은 저 有名한 無極而太極으로 始作한다. 그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¹⁰³⁾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動이 極하면 靜하나니 靜하여 陰을

100) 「孟子」離婁章句下

101) 「論語」雍也第六

102) 「中庸」의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103) 李相殷, “聖學十圖解釋” 「退溪學報」第二輯 및 「고전국역총서국역퇴계집」參照

生한다. 靜이 極하면 다시 動한다.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각 피어 陰으로 갈리고 陽으로 갈리니 兩儀가 맞서게 된다. 陽이 變하고 陰이 合하며 水·火·木·金·土를 生하니 五氣가 順次로 피지어 四時가 돌아가게 된다. 五行은 하나의 陰陽이요 陰陽은 하나의 太極이요 太極은 本來 無極이다. 五行의 生이 각각 그 性을 하나씩 가지니 無極의 眞과 二五(陰陽五行)의 精이 妙合하여 凝結된다. 乾道는 男이 되고 坤道는 女가 되어 二氣가 서로 感하여 萬物을 化生한다. 萬物이 生하고 生하여 變化는 다함이 없다. 오직 사람이 그 秀함을 얻어 가장 靈하다. 形이 이디 생기니 精神이 知를 發하고 五性 곧 仁禮義智信이 感하여 움직이니 善과 惡이 갈리면서 萬事가 생겨난다. 聖人은 이 善惡이 갈라지면서 萬事가 생겨나는 人間社會의 現象에 있어서 事物處理의 基準을 中正仁義로써 定하고(李相殷註: 聖人の 道는 仁義·中正일 따름이다) 靜을 主로 하여(李相殷註: 無欲함으로 靜하다) 人極을 세운다.

그러므로 聖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德이 合하고……退溪는 이 太極圖와 圖說이 周濂溪가 만들었다는 것, 平巖葉氏는 이 그림은 繫辭의 “易有太極是生兩儀生四象”의 뜻을 머루어 밝힌 것인데 易은 卦爻로써 말하였고 이 그림은 造化로서 말하였다고 補說을 붙이고 있다. 이어서 朱子는 “이것은 道理의 大頭腦處요 또 百世道術의 淵源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책머리에 이 그림을 掲載하는 것은 역시 近思錄에서 이 圖說을 첫머리에 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朱子와 함께 「近思錄」을 편찬한 呂東萊祖謙은 太極圖說을 책머리에 두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뒤에 나온 後進들에게 義理의 本源에 대하여 베타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梗槩를 茫然히 모르고 있으면 어찌 그 닿는 곳이 있을 것인가. 책머리에 이를 序列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名義를 알고 嚮望하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한 것 뿐이다(後出脫進於義理之本原雖未客驟語苟茫然不識其梗槩則亦何所底止列之篇端特使之知其名義有所嚮望而已……近思錄集解)

대개 聖人을 배우는 者는 여기서 부터 端을 찾아서 小學과 大學의 類에 힘쓰면 그 功을 거두는 날에 이르러 하나의 근원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窮理盡性以至於命”¹⁰⁴⁾이 이것이며, 이른바 “神妙를 다하고 造化를 알아서 德의 盛者가 된다”(窮神知化 德之盛者也)¹⁰⁵⁾고 덧붙이고 있다.

周濂溪의 이 太極圖說은 宇宙論인데 太極, 陰陽, 五行의 動靜과 變化로 인한 萬物이 生成하는 天道에 관한 것이 있고, 人間이 나서부터 人間相互間이나 人間과 萬物과의 關係가 생기면서 五性의 感動으로 善惡이 갈리고 萬事가 생겨나서 吉凶禍福의 現象이 생김을 말하고 萬事를 處理하는 基準으로서 “中正仁義靜立入極”의 人道에 관한 것이 있다.

104) 易, 說卦傳

105) 易, 繫辭下傳

要컨대 宇宙觀과 人間觀이 太極陰陽論에서 導出된다.

「進聖學割」의 冒頭의 “道無現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라고 한 바와 같이 宇宙와 人間에 대한 完全하고도 全面的인 認識과 當爲의 基本的인 科學과 哲學의 大綱이 體系化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合其吉凶할 수 있는 人間完成, 修齊治平과 宇宙의 完成 또는 成就를 保障하는 科學과 哲學의 統一이다.¹⁰⁶⁾

太極陰陽論 그리고 宇宙觀과 人間觀과 心法은 民本主義政治思想을 闡明하고 있는바 現代社會와 民主主義 發展에 次元 높은 寄與를 할 것이다.¹⁰⁷⁾

② 第二西銘圖

退溪先生의 說明에 西銘은 橫渠張子가 지은 것이며 처음은 訂頑이라고 불리었는데 程子가 고쳐서 西銘이라 하고 林隱程氏가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한다.¹⁰⁸⁾

乾을 아버지라 부르고 坤을 어머니라 부른다. 나 이 조그만한 몸이 混然히 그 가운데 處해 있도다. 그러므로 天地間에 차 있는 것은 나의 形體요 天地를 이끄는 것은 나의 本性이다.(天地之塞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

民은 나의 同胞요 物은 나의 與族이다. 大君이라는 것은 나의 父母의 宗子요 그 大臣이라는 것은 그 宗子의 家相이다.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은 그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所以요(尊高年所以長其長) 외롭고 弱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所以이다. 聖人은 그 德을 습한 사람이요 賢人은 그 배어난 사람이다.(聖其合德賢其秀也) 무릇 天下의 늙고 병들고 의로운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내 兄弟中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呼訴할 데 없는 者이다.

하늘의 威嚴을 敬畏하여 이에 하늘이 人間을 내려 살펴보는 뜻을 보존하는 것은 자식의 公경이요(于時保之子之翼也),¹⁰⁹⁾ 즐거워 근심하지 아니함은 孝에 순수한 者이다(樂且不憂純乎孝者)¹¹⁰⁾

天命을 어김을 惇德이라 하고 仁을 害함을 賊이라 한다. 惡을 더하는 者는 不才요 天性의 自然한 法則에 따라 行動하는 것은 오직 그 어버이를 닮은 者이다(濟惡者不才其陵形惟肖者也)

造化를 알면 그 일을 잘 이어 쫓고 神妙를 다하면 그 뜻을 잘 이어 받는다.(知化則善

106) 琴鍾友, “새마을 精神과 民族精神의 構造的 再照明”, 『새마을運動 學術論文集』 第12輯 5卷, 1987. 琴鍾友, “轉換期에서 보는 儒敎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第7回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 會合同學術大會論文集』, 1987. 10, 韓國政治學會, 參照.

107) 琴鍾友, “韓國의 傳統的 民主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第五回 合同學術大會論文集』, 1985, 韓國政治學會.

108) 右銘橫渠張子所作初名訂頑程子改之爲西銘林隱程氏作此圖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第七卷, 進聖學十圖筭并圖, 第二西銘條 西銘譯文은 李相殷, “聖學十圖譯解”『退溪學報』 第二輯 및 高麗國역총서, 『국역퇴계집』 參照.

109) “于時保之”는 詩, 周頌, 清廟之什, 我將에 “我其夙畏天之威于時保之”라고 있다. 그리고 翼은 公경의 뜻이다.

110) 易繫辭上傳, 第四章에 “樂天知命故不憂”라 하였고, 左傳隱公元年傳에 “君子曰穎考叔純孝也”라 하였다.

述其事窮神則善繼其志) 屋漏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父母를 辱되게 아니 함이요 存心 養性함은 天을 섬김에 게을리 아니 함이다. 맛 좋은 술을 싫어함은 禹임금의 아버지 들 봄이요(惡旨崇伯子之顧養) 英才를 기르는 穎考叔이 그 類를 길이 이어가게 함이다.(育英才穎封人之錫類)

괴로와도 공경을 게을리 아니하여 마침내 아버이를 기쁘게 하니 이는 舜임금의 孝道의 功이요 도망갈 것이 없어 죽음도 避하지 않음은 申生의 恭敬이다.(無所逃而待烹申生其恭也)

父母가 온전하게 낳아주신 몸이니 자식은 마땅히 온전하게 가지고 돌아감은 曾參이며(體其受而歸全者參乎), 따름에 응감하여 命令에 順從함은 伯奇이다.(勇於從而順令者伯奇也)

富貴와 福澤은 장차 나의 生을 두터이 할 것이요 貧賤과 憂戚은 너를 王成시킨이니라(富貴福澤將厚吾之生也貧賤憂戚庸玉女于成也)

살아 있는 동안 나는 順하게 섬기고 죽을 때는 나는 편안히 돌아가리라(存吾順事沒吾寧也)

退溪가 引用한 宋儒의 西銘解說에 따르면 朱子가 말하기를 西銘은 程子가 理一分殊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乾으로써 父를 삼고 坤으로써 母를 삼는 것은 生을 가지는 種類로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理一”이다. 그러나 人과 物의 生이 血脈을 가지는 族屬들은 各各 그 아버이를 아버이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는 것이니 그 分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一統이면서 萬殊이니 비록 天下를 一家로 하고 中國을 一人으로 하여도 兼愛의 弊에 흐르지 않는 것이요 萬殊이면서 一貫이니 비록 親疎가 情이 다르고 貴賤이 等級이 다르더라도 나만 위하는 私에 桎梏되지 않는다. 이것이 西銘의 大旨이다. 그 親親의 厚함을 미루어 大無我的 公으로써 事觀하는 誠에 因하여 事天하는 道를 밝힌 것을 보면 어디를 가나 “分”에 서서 “理一”을 미루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段은 바둑盤 같고 後一段은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하였다.

龜山楊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理가 하나이면서 分이 다르다. 그 理一임을 알기 때문에 仁이 되는 것이요 그 分殊임을 알기 때문에 義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孟子가 親親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 物을 사랑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 分이 같지 아니하므로 그 베푸는 바가 差等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雙峯饒氏는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節은 사람이 天地의 아들임을 밝혔고 後一節은 사람이 天地를 섬기기를 마땅히 자식이 父母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引用하고.¹¹¹⁾

聖學은 仁을 求하는데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天地萬物과 더불어 一體가 되어 眞實로 이렇다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여야 仁을 하는 工夫

111) 雙峯饒氏曰西銘前一節明人爲天地之子後一節言人事天地當如子之事父母也「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西銘條

가 비로소 親切有味하여 莽蕩히 交涉없이 될 근심이 없고 또 物을 自己로 認定하는 병통도 없이 마음의 德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程子是 이르기를 “西銘의 뜻은 極히 完備하니 이것은 仁의 體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다 채워 擴充한 때는 聖인이 된다”고 退溪先生은 說明을 덧붙이고 있다.¹¹²⁾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朱子는 말하기를 “西銘은 程子와 理一分殊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乾으로써 父를 삼고 坤으로 母를 삼는 것은 生을 가지는 種類로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所謂 “理一”이다. 그러나 人·物의 生이 血脈을 가지는 族屬들은 各各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는 것이니 그 分이 다르다. 곧 一統이면서 萬殊이니 兼愛의 弊에 흐르지 않고 爲我에 桎梏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이 西銘의 大旨라고 하였다.”¹¹³⁾

龜山楊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理가 하나이면서 分이 다르다. 그 理一임을 알기 때문에 仁이 되는 것이요 그 分殊임을 알기 때문에 義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雙峯饒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사람이 天地의 아들이고 사람이 天地를 섬기기를 마땅히 父母 섬기듯이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에 退溪는 말하기를 聖學은 仁을 求하는데 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天地萬物과 더불어 一體가 되어 眞實로 이렇다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야 仁을 하는 工夫가 잘 되고 物을 자기로 認定하는 병통도 없이 德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여 仁의 실천은 宇宙 理致의 체득, 따라서 나와 天地萬物이 一體라는 것을 자각하는데 基礎하고 있다는 것을 闡明하고 있다. 第一太極圖와 이 第二圖는 聖學의 가장 重要한 단서라고 할 것이다. 다른 모든 事物과 같이 人間은 자기 다르고 個別的인 存在이지만 그 生成은 다 같이 宇宙의 生成原理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니 人間存在의 平等性 내지 連帶性과 個別性을 자각하여 仁과 義가 당위가 된다.

③ 第三小學圖¹¹³⁾

退溪先生은 말하기를 小學¹¹⁴⁾은 옛적에 그림이 없었는데 退溪先生이 小學의 目錄에 依據하여 小學圖를 만들었다. 이것으로써 大學圖에 對가 되게 하고 또 朱子의 或問에서 大學과 小學은 通論한 說을 引用하여 二者의 工夫하는 大강 줄거리를 나타내었다.

小學과 大學은 서로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或問에서 그것을 通하여 같이 논할 수 있었고 이 두 그림에서도 兼收하여 갖추어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2) 蓋聖學在於求仁須深體此意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眞實如此處爲仁之功始親切有味免於莽蕩無交涉之患又無認物爲己之病而心德全矣故程子曰西銘意極完備乃仁之體也又曰充得盡時聖人也「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第七卷, 進聖學十圖節并圖, 第二西銘條

113) 右小學古無圖臣謹依本書目錄爲此圖以對大學之圖又引朱子大學或問通論大小之說以見二者用功之梗槩蓋小學大學相待而成所以一而二二而一者也故或問得以通論而於此兩圖可以兼收相備云「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第三小學題辭條

114) 小學은 朱子가 先秦時代의 儒敎經典과 史書속에서 古代의 小學敎育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말을 蒐集하여 편찬한 冊이다. 그 內容이 立敎 明倫 敬身의 三大綱領으로 되고 卷頭에 朱子가 지은 題解가 실려 있다.

朱子 小學題辭에서 말하기를 元亨利貞은 天道의 常이며, 仁義禮智는 人性의 綱이다. 이것들은 처음에 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藹然한 四端이 感에 따라 나타나서 愛親敬兄 忠君弟長하니 이를 秉彝(本性)이라 한다.

本性은 順함이 있어 強制함이 없다. 오직 聖人은 性대로 하는 분이라 하늘과 같이 넓고 넓어 털끝만한 힘도 들이지 않아도 萬善이 갖추어진다.

衆人은 미련하여 物欲이 가려 그 綱을 무너뜨리고 自暴自棄한다. 聖人은 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建學立師하여 그 뿌리를 복돋우고 그 가지를 펴게 하였다.

小學의 方法이란 灑掃하고 應退하고 들어와서 孝道하고 나가서는 恭敬하여 行動을 理法에 맞게 하는 것이다. 行有餘力이면 誦詩, 讀書하고 詠歌, 舞蹈하여 생각이 분에 넘침이 없게 하여야 한다.

窮理修身은 이 學問의 큰 것이다. 밝은 命이 환하여 안과 밖이 없으니 德崇業廣하여야 復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世代가 멀어지고 聖人이 없어져서 經典이 衰殘하고 가르침이 解弛하니 어린이 가르침이 端正치 못하여 자라서 더욱 浮薄하여지니 마을에 善한 風俗이 없어지고 世代마다 좋은 人材가 不足하고 利欲에서 싸움질을 하고 異端의 말로 시끄럽게 떠든다. 다행히 本性이 다 떨어지지지는 아니 하였으니 이에 舊聞을 모아 뒤에 오는 世代를 깨우칠까 한다고 하고 있다.

요컨대 天道와 人道에 관한 朱子哲學이 반영되어 있으며 젊은이의 教育이 重且大한 課題이며 그 思想과 方法이 小學의 內容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¹¹⁵⁾

退溪先生은 “小學圖”를 그리고, 小學題辭를 붙이고 또 朱子의 大學或問의 말을 부치고 있다.

朱子는 말하기를 學의 大小는 물론 같지 아니하나 그 道됨은 한가지일 따름이다 하고, 그러므로 어렸을때 小學을 익히지 아니하면 그 放心을 거두고 그 德性을 養하여 大學의 基本을 삼을 수 없고 자라나서 大學에 들어가지 않으면 義理를 살펴서 事業에 實施하여 小學의 成功을 거둘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幼學의 士로 하여금 반드시 먼저 스스로 灑掃應對進退의 間과 禮樂射御書數의 習에 다 익숙해지게 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서 明德新民에 나아가 至善에 그치도록 하는 것은 順序上 當然한 것이라고 한다.¹¹⁶⁾

115) 小學은 內外篇 두 부분으로 編成되었다. 內篇은 立教第一, 明倫第二, 敬身第三, 稽古第四로 編述되어 있는데, 立教, 明倫, 敬身은 모두 虞, 夏商周時代의 聖賢의 말을 叙述한 것으로 小學의 綱領이 되는 것이요 稽古는 聖賢이 行을 採錄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實例를 보인 것이다. 外篇은 嘉言第五, 善行第六으로 編述되었는데 嘉言은 漢代以後의 賢人의 말을 叙述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內容을 더 넓힌 것이요, 善行은 漢代 이후의 賢人의 行을 記錄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事例를 더 보여준 것이다. 立教란 教法을 세운다는 뜻이니 教法을 세워 사람을 教化한다는 것이고, 明倫이란 人倫을 밝힌다는 뜻이니 倫理를 밝힘으로써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敬身이란 스스로 그 몸을 조심한다는 뜻이니 大學에 이른바 「修身」, 中庸의 「誠身」이 모두 敬身에 해당된다.

116) 李相殷, 前揭譯解 參照

어떤 사람이 또 “만약 그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서도 이에 미치지 못한 좁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들으니 朱子는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지나갔으면 물론 할 수 없지만 그 工夫의 順序와 條目이야 어찌 補充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들으니 「敬」字는 聖學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는 所以의 것이라고 한다. 小學¹¹⁷⁾을 하는 이로서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本源을 함양하여 灑掃應對進退의 節과 六藝의 가르침을 삼가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요 大學을 하는 이도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聰明을 開發하여 德을 나아가게 하고 業을 닦아서 明德 新民의 功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不幸히 때를 놓친 뒤에 學問하는 사람은 진실로 能히 이에 힘써서 大에 나아가고 그 小를 兼補하면 그 나아가는 所以가 장차 根本이 없어서 自達하지 못하게 될 念慮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¹¹⁸⁾

④ 第四大學圖

退溪先生은 말하기를 大學은 孔氏遺書인데 國初에 陽村 權近이 大學圖를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章下에 引用된 或問의 大學과 小學을 通論한 뜻은 小學圖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大學과 小學 두 說만 通해 볼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여덟 그림도 모두 마땅히 이 두 그림과 通해서 보아야 한다.

대개 이 두 그림은 端을 求하여 擴充하고 天을 體하여 道를 다하는 極致의 것으로 小學과 大學의 標準과 本原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明善, 崇德, 廣業을 힘쓰는 것으로서 小學과 大學의 田地와 事功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敬이라는 것은 또 形上과 形下를 通하는 것이니 著工하고 收効하는데 모두 마땅히 從事하며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朱子와 같이 이 十圖를 모두 敬으로써 主를 삼았다고 한다.¹¹⁹⁾

「大學」은 首章이 經文이고 9章의 글은 이 經文을 풀이한 傳文이다. 經文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¹²⁰⁾

大學의 道는 明德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至善에 그치는데 있다. 그칠 때를 안 다음에야 定함이 있고, 定한 다음에야 靜할 수 있고, 靜한 다음에야

或問子方將語人以大學之道而又欲其考乎小學之書何也 朱子曰學之大小固有不同 然其爲道則一而已是
以方其幼也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及其長也不進之於大學則無以察夫
義理措諸事業而收小學之成功 退溪先生文集 目錄上卷之七小學題辭條

117) 今使幼學之士必先有以自盡乎灑掃應對進退之間禮樂射御書數之習俟其既長而後進乎明德新民以止
於至善是乃次第之當然 退溪先生文集 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小學題辭條

118) 又何爲不可哉曰若其年之既長而不及乎此者則如之何曰是其歲月之已逝固不可追其功夫之次第條目
豈遂不可得而復補耶 吾聞敬之一字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爲小學者不由乎此固無以涵養本源而謹
夫灑掃應對進退之節 與夫六藝之教爲大學者不由乎此 亦無以開發聰明進德修業而致夫明德新民之功也
不幸過時而後學者 誠能用力於此 以進乎大而不害兼補乎其小則其所以進者將不患其無本而不能以自達
矣 退溪先生文集 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小學題辭條

119) 右孔氏遺書之首章國初臣權近作此圖章下所引或問通論大小學之義說見小學圖下然非但二說當通看
并與上下八圖皆當通此二圖而看 蓋上二圖是求端擴充 體天盡道極致之處, 爲小學大學之標準本原下六
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 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 而敬者又徹上徹下著工收効皆當從事而勿失者
也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太極圖說言靜不言敬朱子註中言敬以補之 退溪先生文集
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大學經條

120) 李相駁, 前揭譯文 및 「국역퇴계집」參照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다음에야 생각(慮)할 수 있으며 생각한 다음에야 얻(得)을 수 있다. 物은 本末이 있고 일은 終始가 있다.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道에 가까우니라. 옛적에 明德을 天下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앎(知)을 다(致)할 것이니 致知는 格物에 있다.

物이 格한 다음에 앎(知)이 이르고(至), 知가 이른 다음에 뜻이 성실하게 되고 뜻이 성실하게 된 다음에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다음에 修身이 되고 修身이 된 다음에 家齊하고 집이 가지런한 다음에 國治하고 나라가 다스려진 다음에 天下가 平하여진다.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修身으로써 根本을 삼는다. 根本이 어지러워지고 끝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그 厚할 데에 薄하고 그 薄할 데에 厚할 者도 있을 수 없다.

大學은 三綱領과 八條目으로 構成되었으며 三綱領은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이고, 八條目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이다.

八條目은 三綱領을 實現하는 方法 및 節次이다. 大學은 儒學의 目標과 그 目標의 實現方法을 차례로 말한 것이다. 이처럼 目標과 方法을 條理있게 叙述한 것은 儒學經典에 있어서 「大學」이 처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儒學體系를 易簡히 알려면 「大學」을 읽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修齊治平의 根本도 마음에 있다는 것¹²¹⁾을 闡明하고 있다.

大學圖의 大學經文에 退溪가 朱子의 大學或問의 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고 있다.

或者가 말하되 그대는 敬을 어떻게 工夫하는가, 朱子가 말하되 程子是 일찍 “主一無適”으로써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써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는 이른바 “常惺惺法”이라는 것을 말한 일이 있고, 尹氏는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다. 敬이란 一心의 主宰요 萬事의 根本이다. 그 힘쓰는 方法을 알면 小學을 여기서 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 수 있으며 小學을 여기에서 부터 始作해야 할 것을 알면 大學을 이것으로써 끝마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一貫해서 疑心없이 될 것이다.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 있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格物致知하여 事物의 理致를 다한 다면 그것이 이른바 尊德性而道問學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誠意正心하여 修身하면 이것이 이른바 먼저 그 大者를 세우면 小者가 빼앗지 못한다(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天下에까지 미치면 이것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百姓을 편안하게 하는 것”(修己以安百姓)이며, “業을 두렵게 하여 天下가 平하여진다”(篤恭而天下平)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루도 敬을 떠나지 못

121) 上同

하는 것이니 그러면 敬字한 字가 어찌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 아니겠는가 하고 있다.¹²²⁾

⑤ 第五白鹿洞規圖

退溪는 朱子의 白鹿洞規를 바탕으로 白鹿洞規圖를 그리고 朱子의 白鹿洞規後叙를 부치고 自說을 덧붙였다. 自說에서 白鹿洞規는 朱子가 지어서 白鹿洞書院學者들에게 揭示한 것이라고 한다. 白鹿洞은 南康軍 北匡廬山南쪽에 있는데 唐나라 때 李渤이 여기에 隱居하여 白鹿을 기르면서 自適하였으므로 그 洞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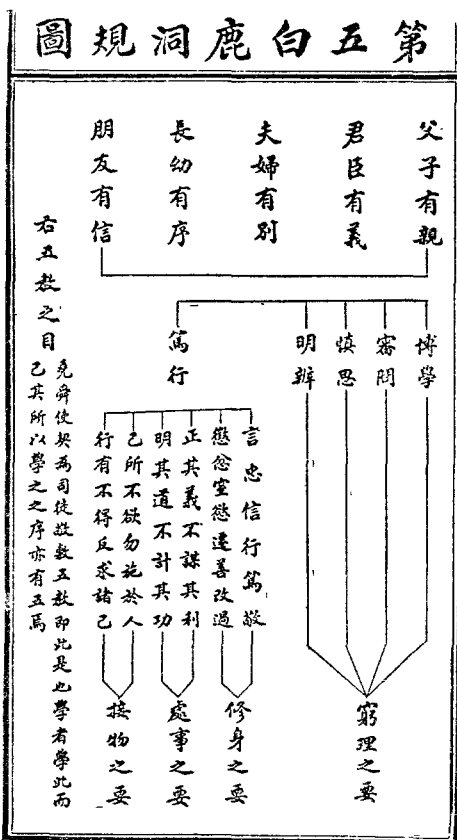
南唐때에 書院을 세우고 國庠이라고 불렀는데 學徒가 항상 數百人에 達하였다. 宋太宗이 書籍을 내려주고 洞主에게 官職을 授與하여 寵勸하였다는 것이다.

中間에 荒廢하게 되어 朱子가 南康軍에 知事로 있을 때 朝廷에 請하여 이를 重建하고 學徒를 모아 規約을 베풀어 道學을 倡明하니 書院의 敎가 드디어 天下에 盛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唐虞의 敎는 五品¹²³⁾에 있고 三代之 學은 모두 人倫을 밝히는 것이므로 規約의 窮理와 力行도 모두 五倫에 根本하였으며 帝王學은 그 規矩와 禁防의 그릇이 비록 일 반學者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彝倫에 根本하여 窮理 力行함으로써 心法의 절실하고 요긴한 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한다. 그리고 以上の 五圖는 天道에 根本하여 人倫을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데 功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같은 退溪의 說明은 白鹿洞規圖를 보는 것으로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다.

朱子의 白鹿洞規는 過去 우리나라 書院의 學規의 典型으로서 매우 重要視되어 왔다. 洞規後叙에서 朱子는 이르기를 내가 가만히 보건데 옛 聖賢이 사람을 가르쳐 學問을 하게 하는 뜻은 모두 義理를 講明하여 그 本을 닦은 然後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



122) 或曰敬者何以用力耶朱子曰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嘗以整齊嚴肅言之門人謝氏之說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尹氏之說則有其心收斂不容一物者焉云云敬者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知其所以用力之方則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可以一以貫之而無疑矣蓋此心既立由是格物致知以盡事物之理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則所謂修己以安百姓篤恭而天下平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然則敬之一字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大學經條

123)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다섯가지의 名位와 等級을 가리키는 말.

려하는 것이고 한갓 그것을 기억하고 두루 살피는데 힘써 詞章으로 명성을 내고 利祿이나 取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學問하는 사람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 그러나 聖賢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法은 經典에 갖추어 있다. 뜻있는 전비는 마땅히 熟讀하고 深思하여 묻고 분명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理의 當然함을 알아서 그 몸으로 반드시 실행하기를 구하려 한다면 規矩禁防을 갖추는 것이야 어찌 남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하고 있다.

近世에도 學校에 規約이 있는데 그 學者를 待함이 이미 淺薄하고 그 法이 반드시 모두 옛 사람의 뜻이 아니므로 이제 이 學堂에는 그것을 實施하지 않고 특히 聖賢이 사람을 가르쳐 學問을 하게 한 大端을 取하여 右와 같이 條目을 列舉하여 門위 懸板에 揭示한다. 諸君은 서로 더불어 講明하고 遵守하여 몸에 實踐하면 思慮와 言行에 있어서 戒謹恐懼할 바가 반드시 저 규정보다 더 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或禁防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 이론바 規約이라는 것을 반드시 取해야 할 것이요 略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諸君은 잘 생각할지어다¹²⁴⁾고 하고 있다.

⑥ 第六心統性情圖

退溪先生은 心統性情的 세 그림의 上圖는 林隱程氏가 그리고 스스로 그 解說을 붙인 것인데 그림이 穩當치 못한곳은 退溪先生이 조금 고치고, 또 中圖, 下圖는 退溪先生이 聖賢의 立言垂教한 뜻을 미루어 생각하여 그린 것이라고 한다.¹²⁵⁾

心統性情圖說에서 林隱程氏 이르기를 이론바 마음(心)이 性情을 거느린다는 것은 사람이 五行의 배어남을 받아서 태어났고, 그 태어남에서 五性이 갖추어져 있고 五性이 動하는데서 七情이 나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릇 그 性情을 統會하는 것은 마음(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寂然不動하여 性이 되니 마음(心)의 體요, 感而遂通하여 情이 되니 마음(心)의 用이다.

張子는 이르기를 “마음은 性情을 거느린다(統)”는 말이 마땅하다. 마음(心)은 性을 거느림(統)으로 仁義禮智를 性이라 하고 또 仁義之心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며 마음(心)은 情을 거느림으로(統) 惻隱 羞辭, 辭讓, 是非를 情이라 하고 또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이니 하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음(心)이 性을 거느리지(統) 못하면 그 未發의 中을 이룰 수(致) 없어서 性이 천착되기 쉽고, 마음(心)이 情을 거느리지(統) 못하면 그 中節의 和를 이룰 수 없어서 情이 放蕩하기 쉽다.

124)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今之爲學者既反是矣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苟知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夫規矩禁防之具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近世於學有規其待學者爲已淺矣而其爲法又未必古人之意也故今不復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條列如右而揭之楹間諸君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謹恐懼者必有嚴於彼者矣其有不然而或出於禁防之外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待而略也諸君其念之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洞規後叙條

125) 右三圖上一圖林隱程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情圖說條

學者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 性을 기르고(養) 그 情을 절제(約)하면 學問하는 길을 찾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¹²⁶⁾

惡溪는 이 心統性情圖說에 이어 中圖下圖에 長文의 說明을 부렸다. 그 中圖는 氣稟 속에 있어서 本然의 性을 指出하여 氣稟을 섞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子思의 이른바 “하늘(天)이 命했다”는 性이나, 孟子의 이른바 “性善”이라고한 性이나, 程子가 이른바 “性即理”라는 性이나, 張子의 이른바 “天地의 性”이라고 하는 性이 모두 이것이라고 한다.

그 性을 말함이 이러함으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그 善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子思의 이른바 “中節의 性”이라든지 孟子의 이른바 “四端의 情”이라든지, 程子의 이른바 “어찌 不善한 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한… 情이나, 朱子의 이른바 “性으로 부터 흘러나온 것은 본래 不善한 情이 없다”고 한 情이 이것이라고 한다.

그 下圖는 理와 氣의 合으로써 말한 것이니 孔子의 이른바 “性相近”이라 한 性, 程子의 이른바 “性即氣, 氣即性”이라 한 性, 張子의 이른바 “氣質之性”이라고 한 性, 朱子의 이른바 “비록 氣속에 있어서도 氣는 氣대로 性은 性대로 서로 섞이지 않는…”고 하는 性이 이것이다.

그 性을 말함이 이러하므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理氣의 相須或은 相害하는 點으로써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四端의 情은 理가 發하고 氣가 다르니(理發而氣隨之) 본래 純善하고 惡이 없지만 반드시 理가 發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가 가리워지면 흘러서 不善으로 되는 것이며 亡者의 情은 氣가 發하여 理가 되니(氣發而理乘之) 역시 不善함이 없지만 氣가 發한 것이 中節하지 못하여 그 理를 滅하면 방탕하여 惡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하므로 程夫子의 말씀에 이르기를 “性을 論하면서 氣를 論하지 않으면 不備하고 氣를 論하면서 性을 論하지 않으면 不明하니 둘로 나누면 잘못이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孟子와 子思가 다만 理만 가리켜 말한 것은 不備한 것이 아니라 氣를 아울러 말하면 性의 본래 善함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것을 不備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中圖의 뜻이라는 것이다.

要컨대 理氣를 兼하고 性과 情을 統攝하는 것은 마음(心)이요 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 즈음(際)은 바로 一心의 幾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善과 惡이 여기로 부터 나누어진다.

學者는 진실로 能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우기 이에 삼가해서 未發인 때 存養의 功이 깊고 已發인 때 省察의 習이 익숙하여져서 참(眞)을 쌓고 오래

126) 林隱程氏曰所謂心統性情者言人稟五行之秀以生於其秀而五性具焉於其動而七情出焉凡所以統會其性情者則心也故其心寂然不動爲性心之體也感而遂通爲情心之用也張子曰心統性情斯言當矣心統性故仁義禮智爲性而又有言仁義之心者心統情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而又有言惻隱之心羞惡辭讓是非之心者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必先正其心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臣謹按程子好學論約其情在正心養性之前此反居後者此以心統性情言故也然究其理而言之當以程論爲順「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情圖說條

형씨 따지 않으면 이른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應用”의 心法이 모두 밖에서 求할 必要가 없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¹²⁷⁾

要是 心統性情圖와 圖說은 心과 性情의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것으로, 心統性情의 工夫를 위한 마음(心)과 性情 그리고 理와 氣의 體와 用 그리고 靜과 動, 理氣의 相須 或은 相害를 按察하고 마음(心)이 理氣를 兼하고 性과 情을 統攝한다. 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 즈음은 一心의 幾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善과 惡이 여기로 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니 學者는 진실로 能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 이에 참가하여 存首의 功과 省察의 翫이 익숙하여져서 참(眞)을 쌓고 오래 힘쓰면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應用的 心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⑦ 第七 仁說圖

仁說은 朱子가 著述하고 退溪는 그림을 만든 것인데 仁道를 남김없이 發明하였다고 한다. 大學傳에 이르기를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치다”고 하였으니 옛 帝王들의 傳心體仁의 妙法을 求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뜻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다.¹²⁸⁾

朱子는 仁이란 天地가 物을 生하는 마음(心)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心)으로 삼는 것이다. 發하기 前에는 四德이 갖추어 있지만 오직 仁만은 네 가지를 다 包括한다. 그러므로 渾然히 全部를 싸서 기루어 統攝한다. 이른바 生의 性이니, 愛의 理니 仁의 體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미 發했을때는 四端이 드러나지만 오직 惻隱만은 四端을 貫通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루 渾어 貫徹하여 通하지 않는곳이 없다.

이른바 性의 情이니 愛의 發이니 仁의 用이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全般的으로 말하면 未發은 體요 已發은 用이다. 部分的으로 말하면 仁은 體요 惻隱은 用이다. 公이란 것은 仁을 體驗하는 所以이니 克己하여 復禮하면 仁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개 公하면 亡하고 仁하면 愛한다. 孝悌는 그 用이 되고 恕는 그 施가 되고 知覺은 知의 일이다.

天地의 마음은 그 德이 있었으니 享元利貞이라 한다. 그러나 그 運行에는 元이 通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것이 春夏秋冬의 차례로 되는데 여기서도 春生의 氣가 通하지 않는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도 그 德이 네가지 있었으니 仁義禮智라 한다. 그러

127) 右三圖上一圖林隱程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其中者就氣稟中圖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而爲言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性善之性程子所謂即理之性張子所謂天地之性是也 其言性既如此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如子思所謂中節之情孟子所謂四端之情程子所謂何得不善名之之情 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情 是也其下圖者以理與氣合而言之孔子所謂相近之性程子所謂性即氣氣即性之性張子所謂氣 質之性朱子所謂雖在氣中氣自氣性自性不相雜之性是也其言性既如此故 其發而爲情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如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掄於氣然後流爲不善七者之情氣發而理乘之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也 夫如是故程夫子之言曰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 二之則不是 然則孟子子思所以只指理言者非不備也以其并氣而言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 此中圖之意也要之兼理氣統性情者也 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真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 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圖說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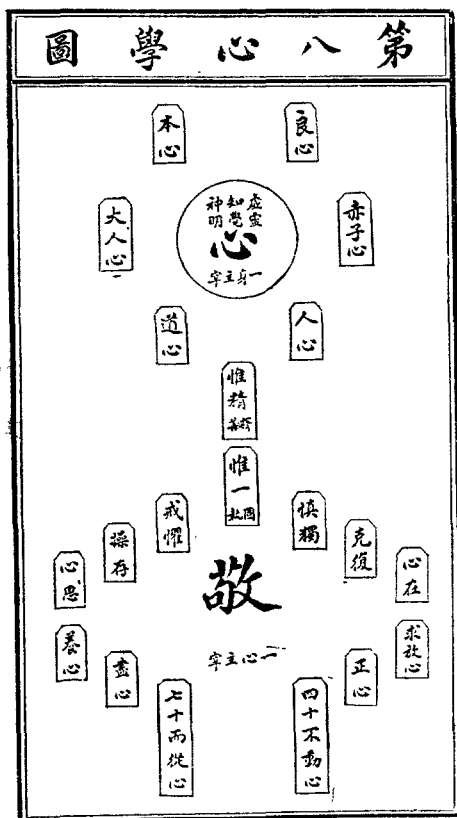
128) 右仁說 朱子所述并自作圖發明仁道無復餘蘊大學傳曰爲人君止於仁 今欲求古昔帝王傳心體仁之妙法於此盡意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仁說條

나 發用에는 仁이 包括하지 않는것이 없다. 그것이 發하여 愛恭宜別의 情이 되는데 여기서도 惻隱之心이 貫通되지 않는 것이 없다. 대개 仁의 道됨은 天地의 物을 生하는 마음이 物에 나아가 있어서(即物而在)情이 發하기 前에 이 體가 이미 갖추어 있고 情이 이미 發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體驗하여 保存하면 衆善의 源과 百行之本이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이 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學者로 하여금 仁을 求함에 汲汲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 말에 “克己復禮爲仁”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私欲을 克去하고 天理에 돌아가면 이 마음의 體가 거기에 있지 않음이 없고 이 마음의 用이 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¹²⁹⁾

위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朱子는 仁이란 天地가 物을 生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라 한다. 朱子仁說에 있어서 仁은 體와 用으로 나누어지고 發하기 前에는 四德이 갖추어 있지만 오직 仁만은 네가지를 다 包括하고 이미 發했을때는 四端이 드러나지만 오직 惻隱만은 四端을 貫通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개 仁의 道됨이 天地의 物을 生하는 마음이 物에 나아가 있어서(即物而在)情이 發하기 前에 이 體가 이미 갖추어 있고 情이 이미 發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體驗하여 保存하면 衆善의 源과 百行之本이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고 이것이 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學者로 하여금 仁을 求함에 汲汲하게 한 까닭이며 “克己復禮爲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私欲을 克去하고 天理에 돌아가면 이 마음의 體가 거기에 있고 그 마음의 用이 行하여 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이 朱子의 仁說에 대해서 退溪는 大學傳에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친다”고 한 바와 같이 옛 帝王의 傳心體仁의 妙理를 求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그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⑧ 第八心學圖

退溪는 心學圖는 林隱程氏가 聖賢의 心學을 論한 名言을 모아서 그림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¹³⁰⁾



129) 「退溪先生文集」目錄上，卷之七(「增補退溪全書」一) 仁說條

130) 右林隱程氏援取聖賢論心學名言爲是圖(「退溪先生文集」目錄上，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心學圖說條)

林隱程氏復心은 이르기를 “赤子心”은 人欲이 어지럽혀지 않은 良心이요 “人心”은 欲에 깨친 것이요(人心即覺於欲者) “大人心”은 義理가 具足한 本心이요, 道心”은 義理에 깨친 것이다.(道心即覺於義理者)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實은 形氣에 生하던 人心이 없을 수 없고 性命이 근원하면 道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精一”과 “擇善而固執”으로부터 以下는 人欲을 막고 天理를 保存하는 工夫가 아닌것이 없다.

“慎獨” 以下는 人欲을 막는 工夫이니 반드시 不動心에까지 이르러야 富貴가 어지럽혀지 못하고 貧賤이 옮기지 못하고 威武가 屈服시키지 못하게 되어 그 道가 밝아지고 德이 確立됨을 알 수 있게 된다. “戒懼” 以下는 天理를 保存하는 工夫이니 반드시 “從心所欲不踰矩”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心이 곧 體요 欲이 곧 用이며 體가 곧 道요 用이 곧 義이며 소리(聲)가 律이 되고 몸(身)이 度가 되어 생각지 않고도 얻고 힘쓰지 아니하여도 드러맞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要컨대 다 하나의 “敬”을 떠나지 못한다. 대개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인 것이다. 學者는 “主一無適의 說 “整齊嚴肅”의 說과 “其心收斂，常惺惺”의 說에 대하여 익숙히 探究하면 그 工夫가 절로 다하여 聖人の 境界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¹³¹⁾

이에 退溪先生은 說明을 補充한다. 退溪는 心學圖에서 類를 나누어 相對시켜 놓기를 될수록 많이하여 聖學의 心法이 一端이 아님을 보여주어 모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위로부터 아래로 排列한 것은 다만 얕고(淺) 깊은(深) 것과 生소(生)하고 익숙(熟)한 것이 있었다는 것 뿐이요 그 工夫하는 과정과 節次가 致知，誠意，正心，修身처럼 先後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或은 疑心하기를 이미 大概로써 말한 것이라던 “求放心”은 用工初 시작의 일이니 “心在” 뒤에 놓일것이 아니라고 하나 “求放心”은 알게 말함은 물론 第一먼저 下手 著脚해야 할 것이지만 그 깊은 것에 就하여 極言하면 瞬息間의 一念의 小差도 역시 “放心”이 되는 것이니 顏子도 오히려 三個月後에는 仁에 어긋남을 뵈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放心”에 關涉된 것이다. 다만 顏子만은 잠깐 어긋났다가도 곧 能히 이것을 알아차리고 알면 곧 다시는 싹트지 아니하니 역시 求放心의 類이다. 그러므로 程氏의 그림이 이와 같다.

程氏의 字는 子見이요 新安사람인데 隱居하여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行義가 매우 갖추어졌다. 늙도록 經書를 窮究하여 所得이 깊었고 四書章圖三卷을 著述하였다고 한다. 元의 仁宗朝에 薦으로 불러 장차 登用하려고 하였으나 子見이 願하지 않으므로 鄉博士를 시켰더니 벼슬을 그만두고 鄉里로 돌아갔다. 그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어찌 所見없이 함부로 그림을 지었겠느냐고 한다.¹³²⁾

이상과 같이 마음들 바를 정하여 공부하는 節次를 明示하고 있다. 人欲을 막고 天理

131)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心學圖說條

132)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之七(「增補退溪全書」一)

를 보존하고 道心을 가지는 工夫는 敬工夫에 있다. 마음(心)은 一身의 主宰이고 敬은 一心의 主宰이기 때문이다. 聖學을 배우는 者가 主一無適의 說과 整齊嚴肅의 說 및 其心收斂, 常惺惺의 說을 익숙히 탐구하던 그 工夫가 절르 다하여 聖人의 경지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다는 心學圖說에 退溪는 理學의 心法이 一端이 아니므로 모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以見聖學心法亦非一端皆不可不用功力云爾)고 덧붙이고 있다.

⑨ 第九 敬齊箴圖

退溪가 이끄기를 敬齊箴題下에 朱子 자신이 설명하기를 “張敬夫가 지은 主一箴을 읽고 그 남긴 뜻(遺意)을 주워 모아 敬齊箴을 지어 齊室壁에 써붙이고 자신을 경계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華人 王魯齊柏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¹³³⁾

朱子의 敬齊箴에 이끄기를 그 衣冠을 바르게 하고 그 瞻視를 높이고(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하여 居處하면서 上帝를 對하듯이 하라(潛心以人居 對越上帝) 발은 반드시 무겁게 놀리고 손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여 땅을 가려 밟되 개미집도 피하여 들어가라. (足容必重手容必恭擇地而蹈折旋蟻封)

門을 나가면 손님같이 하고 일을 받들면 祭祀드리듯 하여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敢히 잠지도 安易하게 말라(出門如賓承事如祭戰戰兢兢罔敢或易). 입을 다물기를 병마개 막듯이 하고 잠생각 막기를 城門 지키듯이 하여 성실하고 진실하여 敢히 잠지도 가벼이 마라(守口如瓶防意如城洞洞屬敢或輕)

西로 간다하고 東으로 가지말며 北으로 간다하고 南으로 가지말고(곧 主一無適을 뜻한다) 일을 당하던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데로 가지말라(不東以西不南以北當事而存蟻他其適).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일과 섞지 말라. 마음은 오직 專一하여야 萬가지 變化를 살릴 수 있다(弗貳以二事參以三惟心惟一萬變是監).

여기에 從事하면 이것이 敬을 지킴이니 動에나 靜에나 어김이 없고 밖이나 안이나 서로 바르게 하라(從事於斯是日持敬動靜弗違表裏交正).

잠시라도 틈이나면 萬가지 私欲이 일어나 불(火)없이 뜨거워지고 얼음없이 차지나니라. 毫釐라도 틀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三綱이 무너지고 九法(洪範九疇)이 또한 폐해비릴 것이다. 아! 아이들아 생각하고 조심하라. 이제 먹을 갈아 글을 써서 경계를 삼아 敢히 心靈에 告하노라(須臾有間私欲萬端不火而熱不水而寒毫釐有差天壤易處三綱既淪九法亦斁於乎小子念哉敬哉墨卿司戒敢告靈臺)¹³⁴⁾

위와 같은 朱子의 敬齊箴에 退溪는 덧붙이기를 朱子가 敬齊箴 “敬의 目說로서 여러 地頭로 말할수 있다” 하였는데 “地頭”란 말이 實地工夫에 있어서 좋은 依據가 된다고

133) 右箴題下 朱子自叙曰讀張敬夫主一箴撥其遺意作敬齊箴書齊室壁以自警云 …金華王魯齊柏排列地頭作此圖「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134)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敬齊箴條

하였다고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의 心目之間에 있어서 體玩하고 警省하여 얻는 것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敬이 聖學의 始終이 된다는 말이 참말이 된다는 것이다.¹³⁵⁾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것은 敬工夫의 細目을 들고 있다. 日常生活에 있어서 敬工夫에 힘을 바를 상세히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㉑ 第十 夙興夜寐箴圖

夙興夜寐箴은 南塘陳茂卿 柏이 지어 스스로 경계한 것인데 敬齊箴圖를 참고로 하여 退溪가 夙興夜寐箴圖를 그렸다고 한다.

夙興夜寐箴圖에 이르기를 탐이몰어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달리기 시작한다. 어찌 그 사이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지 아니하리오. 혹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고 혹은 새로 얻은 것을 생각해내어 차례와 條理를 瞭然하게 알아두어라(鷄鳴而寐思慮漸馳盡於其間潛以整之或省舊愆或納新得 次第條理瞭然默識)

根本이 있으면 이른 새벽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衣冠·차리고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어라 이 마음을 거두어 잡으니 환하기가 해 뜰 것 같다. 嚴肅하고 整齊하고 虛明하고 靜一하다(本既立矣昧爽乃興盥櫛衣冠端座斂形提掇此心瞭如出日嚴肅整齊虛明靜一).

이에 冊을 펴고 聖賢을 마주하면 夫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顏子·曾子가 앞뒤로 서 있다. 聖師의 말씀한 것을 親切히 敬聽하고 弟子의 묻는 말을 한번 반복하여 참고 해 바로 잡으라. 일이 이르러 應하면 行爲에 정렬하라. 하나님의 밝은 命이 환하게 항상 보이도다(乃啓方冊對越聖賢夫子在坐顏曾後先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問辨反覆參訂事至斯應則驗予爲明命赫然常目在之).

事物應接이 끝나면 나는 예와 같아질 것이다. 마음속이 고요하니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어라. 動과 靜은 돌고 돌아 마음만이 이를 살핀다. 고요할때는 保存하고 움직일때는 살피서 정신을 들로, 셋으로 오가지 말라. 글을 읽다가 여가를 틈타서 간간이 游泳을 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情性을 休養하여라(事應既已我則如故方寸湛然凝神息慮動靜循環惟心是監靜存動察勿貳勿參讀書之餘間以游泳發舒精神休養情性).

해가 저물고 사람이 倦怠로워지면 흐린 기분이 쉽게 타고들어오니 장중하게 가다듬어 精明을 떨쳐라. 밤이 깊어 잠에들되 손을 마주쥐고 발을 모으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心神을 잠으로 들어가게 하라. 夜氣로써 養하고 貞固하면 元에 돌아간다. 생각을 여기에 두고 終日乾乾夕惕若하라)日暮人倦昏氣乘齋莊整齊振拔精明夜久斯寢齊手斂足不作思惟心神歸宿養以夜氣貞則復元念茲在茲日夕乾乾.¹³⁶⁾)

退溪는 위와같이 夙興夜寐箴에 덧붙여 說明하여 이르기를 金華王魯齊가 일찍 公州의 上蔡書院에서 敎育을 주관할 때 오로지 이 箴으로써 敎材로 삼아 學者로 하여금 각각 誦習 服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대개 敬齊箴은 여러가지 工夫하는 地頭가 있으므로 그

135) 臣竊謂地頭之說於做工好有據依…而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目之間而有得焉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之 七敬齊箴條.

136) 「退溪先生文集」目錄 上卷之六(夙興夜寐箴條).

地頭에 따라 排列하여 그림이 되었다. 대저 道가 日用사이에 流行함을 간때마다 있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理가 없는 곳이란 한군데도 없는 것이니 어느 곳인들 工夫를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잠깐 사이에도 停止할수 없음으로 순식간도 理가 없는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工夫를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러므로 子思子 가로되 “道라는 것은 잠시라도 사람에서 떠나지 못한다.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보지 못하는데서 참가하고 듣지 못하는 데서 두려워하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숨긴다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적다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홀로를 참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一動一靜 어느 것이나 곳에 따라 때에 따라 存養하고 省察하여 그 功夫를 힘쓰게 하는 法이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地頭에서나 毫釐의 差失도 없을 것이고 어느 時點에서나 순간의 中斷도 없을 것이다. 두 가지를 並進시키면 聖人이 되는 要領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의 五圖는 心性에 근원한 것이며 要是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고저 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Ⅴ. 結 論

위의 考察에서 退溪先生의 學說은 政治의 治亂 兩面에 대한 詳細하고도 深遠한 認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戊辰六條疏의 그 둘째 條目에 “讒訴와 이간질을 막아 兩宮을 親하게 할 것(杜讒間以親)을 陳言하기를 孝와 慈의 道는 天性에서 나와서 衆善의 으뜸이 되며 그 恩惠가 지극히 깊고 그 人倫이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이 가장 切實하다고 하고 지극히 깊은 恩惠를 가지고 지극히 무거운 人倫에 따라 가장 切實한 情을 行하는 것이니 事理로 보아서는 마땅히 극진히 다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하지만 或孝道가 결함이 있고 또 慈愛하는 天性이 또한 없어 지는데 이르러 甚한 者は 至親이 사랑이 되어 돌보지 아니함이 있으니 帝王의 家庭에 있어서 이런 근심이 더욱 많다고 한다.

그 까닭은 대체로 그것은 情勢가 막히기 쉽고 참소와 이간질이 더욱 많은 까닭이다. 宮殿이라고 하는 곳은 嚴하고 날마다 나아가 뵈기에 事勢가 혹 막히고 일은 복잡다단하여 情이 혹막히고 뭉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情勢가 막히기 쉽다는 것이요 참소와 이간질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兩宮사이에는 左右에서 가까이 모시는 환관과 女子들이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심부름하는 侍從들이 모두 환관과 女人들이온데 이들의 성격이 대개 모두 음흉사악하고 교활하여 간사함을 끼고 사사로운 생각을 품어 亂을 좋아하고禍를 즐기며 孝慈가 무엇인지 禮義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오직 집기는 일 만을 소중히 여겨 양쪽으로 서로 勢를 갈라 對立하여 많은 것을 비교하고 은혜와 원망이 잠간사이에 생기며 利害가 向背에 따라 決定되며 없는 것을 있다하고 옳은 것을 그러다하여 情狀이 萬가지로 나타나 도깨비나 불여우와 같이 或은 激하여 怒하게도 하고 或은 속여

서 무섭게도 한다. 그런것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여 믿게되면 자연히 不孝가 되어 어버이를 不慈에 빠트리게 된다고 하고 있다. 또 人君으로서 能히 이 學問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고 或 뜻을 두더라도 能히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사람이 더욱 적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깊은 洞察은 적어도 顯著하게 政治哲學書의 性格을 지닌 儒敎의 聖經賢傳과 史書에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先生의 出仕期間에 直接 見聞하고 經驗한것을 미루어 알게 된 것에서 由來한 一端이라고 볼 수 있다.

孔子는 “政者는 正也”라고 하였다. 政治라고 하는 것은 不正을 바루는 것이라는 뜻이다. 바룬다는 것은 不正일 때는 바루는 거이요 不正이 거의 없는 治의 狀態라면 그것을 그대로 持續하여 不正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包含된다. 要컨대 不正과 正이 짝이 되어 있는 二元性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陰陽對待의인 또는 治亂의 對待的인 것을 亂을 極小化 내지 없게하고 治를 極大化하는 것이 政治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退溪先生은 儒敎政治思想을 계승하였을 뿐만아니라 보다 具體的으로 現實的으로 깊고 詳細하게 洞察하여 다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性理學에 있어서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性理學은 宇宙萬物이 각각 짝을 지어 存在하고 있다는 理學이기 때문이다. 政治에 대한 위와같은 洞察이 있기 때문에 修齊治平을 이루기 위해서 곧 “政者正也”가 되기위해서는 聖學을 敦篤히 하여 政治의 根本을 세우는 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宇宙와 人間 곧 天道와 人道가 闡明되어 있다. 곧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말이 없다. 河圖洛書가 나옴으로 부터 聖人이 그것에 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 하였는데 이것은 太極陰陽論을 친명한 것이며 여기서 天地人 三才思想과 天人 合一思想 그리고 民本主義 政治思想이 또한 친명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宇宙의 大自然과 人間萬事는 治亂邪正得失盈虛消長興亡盛衰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人間은 聖學을 알고 실천하였을 때 治正得興盛盈長이 保障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人心 道心說과 그 精一執中の 心法이 또한 闡明되어 있다. 精一執中은 敬工夫에 의해서 敬工夫는 聖學十圖와 圖說에 의해서 具體的인 實踐方案이 提示되어 있다. 이를 쉬임없이 長久하게 준수하여 궁행 실천할 때 與天地合其德하는 存在가 될 수 있다.

위와같이 退溪先生은 敬工夫로서 人間의 完成을 垂敎하고 있거니와 朱子の「大學或問」의 말을 이렇게 引用하고 있다.

或者가 가로되 그때는 敬을 어떻게 工夫하는가. 朱子가되 程子는 일찍 “主一無適”으로써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써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는 이른바 “常惺惺”이란 것을 말한 일이 있고 尹氏는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敬이란 一心의 主宰요 萬事의 根本이다. 敬은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라고하는 朱子의 學說에 聖學十圖도 敬으로 主를 삼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聖學은 敬으로 根本을

삼고 理致를 窮究하고 致知하여 몸에 돌이켜 참됨을 실천하는데 이르러서는 妙한 心法이며 道學을 傳하는 要諦라는 것이다. 이같은 眞知와 實踐의 學說을 銘心하여 敬으로써 시작하고 敬으로써 끝맺으라고 한다. 이같은 退溪政治思想의 또 하나의 特色은 謙德을 바탕으로 展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과 같은 높은 德을 가지고 낮은 땅속에 있는 이른바 “地山”이 謙의 表象 그것이다.